# 장애인 창업기업 데이터분석을 통한 창업활성화 연구

2019. 11



## 장애인 창업기업 데이터분석을 통한 창업활성화 연구

연구수행기관 : 시앤티컨설팅 그를

연구책임자: 조세형

공동연구원: 정동열

## 목 차

I.	入	d론 ······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3.	연구방법	4
II.	. '	이론적 배경	··· 5
	1.	장애인의 개념, 유형 및 현황	5
	2.	창업의 개념과 장애인 창업	8
	3.	장애인 창업 관련 선행연구	· 10
	4.	장애인 창업지원정책 및 제도	· 15
	5.	국외의 장애인 창업 지원제도 운영 사례	· 18
II.	I.	장애인 창업기업 현황 및 실태분석	· <b>2</b> 0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20
	2.	창업환경 특성	. 22
	3.	창업에서의 애로사항	· 25
	4.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사항에 대한 인식	. 39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 관련 지원 사항 도움 수준	. 55
	6.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 및 폐업 이유에 대한 인식	- 59
IV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67
	1.	결론	. 67
	2	기계기계시	(0

## <표 차례>

<표 Ⅱ-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6
<표 Ⅱ-2> 장애유형별 등록 현황7
<표 Ⅱ-3> 취업 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단위: %)9
<표 Ⅱ-4> 사업체 업종별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단위: 개, %) ···································
<표 Ⅱ-5>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단위: 개, %)10
<표 Ⅱ-6> 장애인 창업 관련 선행연구 종합11
<표 Ⅱ-7>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 종합15
<표 Ⅱ-8>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규모(단위: 명)16
<표 Ⅱ-9>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시상내역17
<표 Ⅲ-1> 응답자 일반적 특성
<표 Ⅲ-2> 창업환경 특성23
<표 Ⅲ-3>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표 Ⅲ-4>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26
<표 Ⅲ-5>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28
<표 Ⅲ-6> 창업예정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30
<표 Ⅲ-7> 창업예정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31
<표 Ⅲ-8>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34
<표 Ⅲ-9>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34
<표 Ⅲ-10>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36
<표 Ⅲ-11> 창업준비단계와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비교 38
<표 Ⅲ-12>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업 지원 수혜 여부39
<표 Ⅲ-13>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업 지원 실질적 도움 여부 40
<표 Ⅲ-14> 창업예정자의 창업하기 전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44
<표 Ⅲ-15>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기47
<표 Ⅲ-16>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시기 인식차이47
<표 Ⅲ-17>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필요 시기 인식 차이49
<표 Ⅲ-18>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애로사항51
<표 Ⅲ-19>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 애로사항52
<표 Ⅲ-20>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53
<표 Ⅲ-2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지원 사항 수혜 여부55
<표 Ⅲ-2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지원 사항 도움 수준56
<표 Ⅲ-23>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
<표 Ⅲ-24>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 성공요인 인식 차이59
<표 Ⅲ-25>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61

<표 Ⅲ-26> 창업준비단계 및 창업 후 경영단계 애로사항과 창업	d 성공요인 비교 ······ 62
<표 Ⅲ-27> 조사 도구 및 분석 방식별 투입 변수	64
<표 Ⅲ-28> 창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5
<표 Ⅲ-29> 창업휴폐업자의 휴폐업 이유	66

## <그림 차례>

[그림	<b>Ⅲ-1</b> ]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약	법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43
[그림	Ⅲ-2]	창업예정자의	창업하기 :	전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4
[그림	Ⅲ-3]	장애인기업종	합지원센터	창업 관	<u></u> 년 지	원 사	항	도움 수	군		 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은 법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장애인복지법 제2조), 기능이나 신체 구조 혹은 활동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를 가지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Cieza & Stucki, 2008; WHO, 2007; 오동훈 & 김창완, 20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주요 목적과 연계선상에서 장애인의 창업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창업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원회, 2010).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애인은 총 267만명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구 대비 취업률은 36.9%인 것으로 조사(15세 이 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1.3%)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5.1%로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3.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취업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는 상용근로자 26.9%, 일용 및 임시근로자 42.0%, 자영업자 27.3%이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710천원으로 2014년 1,525천원에 비해 12.1%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장애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 및 연수, 경영활동 및 관로지원 등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 권장 등이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자립형 모델로 변화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1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6), 대표적인 창업지원 유형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 복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시설지원 등 수혜적 복지나 재활지원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오문식, 2017).

창업 성공요인 구명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①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② 창업 아이템, ③투자자금 등을 꼽고 있다(이원희, 2010). 첫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며 개인적인 특징으로써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들고 있다. 배경적 특성으로는 창업자의 교육수준, 성별, 연령, 가정환경, 경험 등 인구통계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창업자의 성취욕구, 통체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등을 들고 있다. 둘째, 창업아이템 선정은 창업성공의 중요 요소이다. 특히 창업자가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임이 분명하며, 사업 아이디어는 창업을 결정하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이다. 셋째, 자본금 역시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창업자금의 확보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업에서 충분한 초기자본은 사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생존하는데 보다 높은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이원희(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장애인의 개별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및 등급), 창업 전 요인 (근로경력, 창업동기), 창업요인(창업 관련 자격증 등 아이템 요인), 창업자금 요인 (자기자금, 장애인 창업자금)을 회귀분석한 결과, 창업요인과 창업자금 요인은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특허, 실용신안 등 창업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창업투자금으로 장애인의 자기자금 규모와 장애인 창업자금 규모가 클수록 정(+)의 관계로 창업성공가능성이 큼을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창업 결정요인, 성공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창업을 주제로 장애인의 창업 교육, 창업 활동, 정부 지원 수혜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풀을 활용하여 실제 장애인의 창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지원 관련 사항, 창업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하여 실 중적인 창업 활성화 방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창업기업 데이터분석을 통해 창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창업 환경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장애인의 창업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장애인의 창업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넷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 관련 지원사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다섯째, 장애인 창업의 성공요인과 폐업 이유를 분석한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창업 이후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 573명과 창업후 휴·폐업한 경우 57명이 응답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11일간 진행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모바일 조사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장애인의 개념, 유형 및 현황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에 국제질병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장애분류모델(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장애를 개인적인 특성인 신체손상(Impairment), 손 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기능장애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능력장애를 포함한 장애(Disability),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Handicap)로 분류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1980). 장애는 물리적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로 나뉜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장애물과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작용이 부족한 자로정의되는 장애자가 사회에 참여가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WHO, 2007).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로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결처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로는 신체적·정 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표 Ⅱ-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의 종류	기준
지체장애인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착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 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이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 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의 종류	기준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 른 감정조절 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 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 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 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 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재구성.

2015년 12월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490,406명으로 전체 인구의 4.9% 수준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6).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51.5%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각장애 10.2%, 뇌병변장애 10.1%, 청각장애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 장애유형별 등록 현황

장애유형	등록 현황(명)	비율(%)
지체	1,281,497	51.5
시각	252,874	10.2
뇌병변	250,862	10.1
청각	250,334	10.1
지적	189,752	7.6
정신	98,643	4.0
신장	74,468	3.0
언어	18,813	0.8
장루·요루	14,116	0.6

장애유형	등록 현황(명)	비율(%)
자폐성	21,103	0.5
호흡기	12,033	0.5
간	10,324	0.4
뇌전증	7,069	0.3
심장	5,833	0.2
안면	2,685	0.1
합계	2,409,406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 장애인실태조사. 오동훈, 김창완(2017)에서 재인용.

## 2. 창업의 개념과 장애인 창업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창업(創業)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업자 중에서도 초기 창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자란 창업자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학문적으로 창업이란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합하여 기 설정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판매 등 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신금순, 2002; 오동훈, 김창완, 2017에서 재인용),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본과 사람을 통해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것과도 같다 (이신모, 2002; 오동훈, 김창완, 2017에서 재인용).

한편, 창업의 직업재활적 측면에서 볼 때 창업과 자영업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창업(創業)은 기업(起業)의 뜻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을 의미하고, 자영(自營)은 통상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사업을 경영함", "자기의 힘으로 생계를 이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창업이란 사전적 의미 이외에 직업재활에서는 직업개발의 또 다른 갈래로 본다. 자영업은 사전적 의미가 서술되어 있지 않은데 관용적으로 보면 자영(自營)의 의미에 업(業)이 포함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 정상적으로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면 자영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업의 정의는 자영업에 속하고 시간적으로 자영업의 초기과정의 단기간을 의미하는 직업개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조성렬, 김백수, 2005; 이원희, 2010에서 재인용).

2005년 7월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 기업을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취업 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자영업자(고용주, 노점 포함)는 전체의 27.3%를 점유하고 있다. 취업 장애인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5년 34.5%, 2011년 30.5%, 2014년 34.7%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Ⅱ-3> 취업 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임금 근로자	57.8	65.3	59.8	68.9
상용 근로자	23.5	25.9	23.8	26.9
임시 근로자	15.5	16.8	17.2	22.2
일용 근로자	18.8	22.6	18.8	19.8
비임금 근로자	42.2	34.7	40.2	31.1
자영업자(고용주, 노점 포함)	34.5	30.5	34.7	27.3
무급가족종사자	7.7	4.2	5.4	3.7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4).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p.30.

한편, 국내에는 39,967개의 장애인기업이 있고, 이 중 규모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이 37,049개로 전체의 92.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2,002개로 30.0%, 개인서비스업이 20.9%, 제조업이 20.0%, 숙박음식점업이 15.1% 순을 보이고 있다(<표 II-4〉, 〈표 II-5〉 참조).

#### 〈표 Ⅱ-4〉 사업체 업종별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

#### (단위: 개, %)

구분	도소미	H업	개인서비	l스업	제조	업	숙박음식	식점업	기티	<b>}</b>	계	
기업체	12,002	30.0	8,339	20.9	7,989	20.0	6,024	15.1	5,613	14.0	39,967	100.0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표 II-5⟩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

(단위: 개, %)

구분	소상공인		중소기	업	계		
기업체	37,049	92.7	2,918	7.3	39,967	100.0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3. 장애인 창업 관련 선행연구

장애인 창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장애인 창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창업 아이템 등 장애인 창업에 있어 필요한 주제어를 통해 확인한 기존 연구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첫 번째 동향은 장애인창업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의 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김관호, 2013; 원준호, 송수정, 강경식, 2009; 원준호, 이정섭, 송수정, 강경식, 2009), 공공구매를 포함한 판로개척(김관호, 2013; 김상진, 송수정, 원준호, 2009; 김상현, 송주환, 2016; 김진, 2012; 송수정, 원준호, 2010; 원준호, 2010; 원준호, 송수정, 강경식, 2010)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아이템에 대한 높은이해도와 창업의지(이금진, 2008), 지식과 경험과 자기자금규모(이원희, 2010), 개인특성요인, 준비과정, 경영관리, 창업모형 제시(박정희, 2005), 성별과 연령(이은경, 2008), 심리적 특성, 지식역량, 장애급수, 직장경력기간(변충규, 성창수, 2012), 자영창업요인(이준우, 2006) 등이 연구되었다. 세 번째는 장애인창업지원제도에 관한연구로 필요성(조성열, 김백수, 2005), 마케팅전략(정은혜, 2015), 창업지원바안(이효성, 정재은, 2002),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길종성, 2005; 김백수, 2007; 연삼흠, 2013)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표 Ⅱ-6> 장애인 창업 관련 선행연구 종합

구분	주요 연구내용	선행연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방향(명확한 장애인기업 의 의 제시 및 장애인기업 범위 설정)	원준호, 송수정, 강경식(2009)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공공구 매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행정절차 편리성 기반 시책 개발, 역량 있는 장애인 기업 발굴 및 공공구매 지원 강화, 법규 개정)	
	장애인기업 경쟁력 향상 정책방안(장애인 관련 창업 정 책자금 체계의 일원화, 신용보증 접근의 편의성 제공, 장애인기업 가점제도 마련)	원준호, 송수정, 강경식(2009)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공공구매 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행정절차상의 편리성 향 상을 위한 시책 개발, 역량 있는 장애인 기업 발굴 및 공공구매 지원 강화)	원준호, 송수정, 강경식(2010)
장애인 창업 법과 정책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각종 정책 의 조정 및 통합, 장애인기업법령 수정, 세제지원정책, 공공구매목표비율 설정 등의 장애인기업 지원규모 확 대 필요)	김관호(2013)
	·정책 개선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지원대상 명확화, 장애인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 정책, 장애인기 업 공공구매 의무비율 설정 필요)	원준호(2010)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및 지원정책 중요도(자금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김상진, 송수정, 원준호(2009)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원확대 제안	김상현, 송주환(2016)
	·전자바우처 사업을 통한 장애인 대상 사업 활성화	김진(2012)
	·장애인기업에 국내외 정책 고찰(한국, 미국, 영국, 일본 4개 나라 모두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태 존재, 사회통합의 논리 작용, 초기에는 민간 주도이나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	원준호, 이정섭, 송수정, 강경식(2009)

구분	주요 연구내용	선행연구
	·장애인의 창업실태와 창업성공요인(사업아이템에 대한 높은 이해와 강한 성공 의지)	이금진(2008)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창업업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자금 규모가 클수록 창업성공에 영향 요인)	이원희(2010)
	·장애인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성공전략 연구(실천현장에서의 장애인 창업지원시스템 도입, 관련 전문가 양성, 기관의 지원제도 통합을 통한 정형화된 창업지원과정 개발 필요)	김백수, 박경순(2008)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	·산재장애인 창업의 사업성과(장애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 창업 준비과정 요인, 경영관리 요인, 산재장 애인의 창업을 위한 모형 제시)	박정희(2005)
	·장애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은경(2008)
	·장애인 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장애 인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지식역량, 장애급수, 직장 경 력기간이 경영성과에 영향 요인)	변충규, 성창수(2012)
	·신규 장애인의 자영창업 요인(생계수단 유지, 노동에 대한 자부심, 소득향상 등)	이준우(2006)
	·장애인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방향(효율적 효과성 제고, 창조적 적합성 증대, 합리적 통합성 확대, 상황적 전문 성 강화, 현실적 접근성 개방 등 방향성 제시)	조성열, 김백수(2005)
	·장애인 창업의 미케팅전략(장애인 창업 성장 모델 제시 및 성장형 창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 수익모델 제시)	정은혜(2015)
	장애인 창업지원 방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방향 장기적 지원, 창업보육기업 현실적 입주기간 설정, 역 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연계)	이효성, 정재은(2002)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효과성 분석(기존 영업장소전대지원 사업 활성화, 장애인창업지원 자금 예산 확대, 창업전문기 관과의 업무 연계, 장애인 창업지원 신용보증제도 도입)	길종성(2005)
	·장애인 창업지원 이해 및 활성화 방안(직업재활현장에 서의 창업지도, 직업재활과정에서 익힌 현장기술을 장 애인 창업지원 영역에 접목 노력 필요, 관련분야 전문 가 집단 지속적 연구 필요)	김백수(2007)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활용 방안(기관별 통합 지원 시스템 및 장애인기업 관할 부서 일원화, 홈페이지 장애인접근성 강화,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율 정립 필요)	연삼흠(2013)

자료: 오동훈, 김창완(2017). 장애유형별 창업아이템 선정과 창업성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창업학 회지, 12(3), pp9-11.

한편,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을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박정희(2005)는 산재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체계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창업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요인(배경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는 창업준비과정 요인(업종경험, 창업 준비기간, 자격증 취득 유무, 자금조달)과 경영관리 요인(종사원 구성, 전문가 상담, 마케팅 전략, 자금통제)의 3가지 요인이 산재장애인 창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3가지 요인의 하위 일부 요인들이 각각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3가지 요인의 하위 일부 요인들이 각각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우(2006)는 신규장애인의 자영창업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범주 확대라는 복지여건의 변화에 따라 유입된 신규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안정이라는 중요한 장애인 직업재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써 자영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창업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창업기회, 사업능력, 사업성향, 창업자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이금진(2008)은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영업장소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태와 창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창업자의 권리보유 및 전직경험을 통한 아이템 선정방식이 사업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사업아이템 및 운영방식이 고정된사업이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의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업성과에 영향을 주었다. 즉, 창업시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 비용지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창업자의 성숙도와 창업자의 의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종합되었다.

김백수와 박경순(2008)은 장애인 창업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극소화할 수 있는 장애인 창업의 성공전략을 실천현장 측면에서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 창업의 성공전략으로 실천현장에서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 도입, 실천기관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과정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은경(2008)은 장애인의 창업의지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원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관련 요인인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창업의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인적 요인 중에는 자기유능성,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등에 따라 창업의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원 요인에 따라서도 창업의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회(2010)는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장애인의 개별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및 등급), 창업 전 요인(근로경력, 창업동기), 창업요인(창업 관련 자격증 등 아이템 요인), 창업자금 요인(자기자금, 장애인 창업자금)을 회귀분석한 결과, 창업요인과 창업자금 요인은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특허, 실용신안 등 창업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창업투자금으로 장애인의 자기자금 규모와 장애인 창업자금 규모가 클수록 정(+)의 관계로 창업성공 가능성이 큼을 예측하였다.

오동훈과 김창완(2017)은 장애인 창업시 자신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사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체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의 경우 기본적으로 언어장애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창업아이템 선정에서도 고객과의 접촉이나 대화가 적은 단순 소매판매 등의 업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의 경우 창업자는 모두 안마업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 〈표 Ⅱ-7〉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 종합

구분	창업 성공요인
박정희(2006)	·개인적 특성요인, 창업준비과정 요인, 경영관리 요인의 하위 일부 요인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이준우(2006)	·창업기회, 사업능력, 사업성향, 창업자본은 창업에 필수적인 요인
이금진(2008)	·창업자의 권리보유 및 전직경험을 통한 아이템 선정방식, 사업아이템 및 운영방식이 고정된 사업, 창업자의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
김백수&박경순 (2008)	·실천현장에서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 도입, 실천기관의 전문가 양성에 적 극적인 투자,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과정 개발
이은경(2008)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직업관련 요인(취업경험 유무), 개인적 요 인(자기유능성,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등에 따라 창업의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이원희(2010)	·창업요인(창업 관련 자격증 등 아이템 요인), 창업자금 요인(자기자금, 장애인 창업자금)
오동훈&김창완 (2017)	·장애유형을 고려한 창업아이템 선정

#### 4. 장애인 창업지원정책 및 제도

장애인 창업 관련 지원 제도 및 정책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①맞춤형 창업교육, ②창업아이템 경진대회, ③사업화자금 지원, ④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 가. 맞춤형 창업교육

맞춤형 창업교육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인식 개선 및 창업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우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연 1.50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다.

#### <표 Ⅱ-8>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규모

#### (단위: 명)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기초교육	역량강화	재기교육	기초교육	특화교육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생	340	100	50	700	140	170	

자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주) 교육상황에 따라 수료생은 변경될 수 있음

맞춤형 창업교육은 일반교육과정과 특화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 반교육과정은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분야별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교 육은 창업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컨설팅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수료 후 창업아이템을 선정한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특화교육과정은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 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창업교육, 기술교육, 특화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장애인기 업중합지원센터, 2019).

## 나.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혁신적 장애인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에 특화된 창 업분야 도출을 통해 장애인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진대회의 지원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아이템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해 우수 창업아이템을 11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①아이템 우수성, ②사업 추진역량, ③창업아이템 기술성, ④사업화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창업아이템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II-9⟩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시상내역

	시상내역	상금	시상편수
창업아이템	대상	1,000만원	1
	최우수상	500만원	2
발굴	우수상	300만원	2
	장려상	100만원	6
	합계	3,200만원	11

자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다. 사업화자금 지위

사업화자금 지원은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장애인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비 장애인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단, 직전년도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교육, CEO 경영혁신교육, MBA 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며, 9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아이템의 가능성, 시장성, 시장경쟁력, 제출 서류의 작성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며,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별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자부담 20%)하고 있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19).

## 라.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으로 임차하여 3(+2)년간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

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이며,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19).

#### 5. 국외의 장애인 창업 지원제도 유영 사례1)

#### 가. 미국

미국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지원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별개의 지원정책이 없으며, '장애인기업'이라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성격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제도는 중소기업법 '장애인 단체'규정에 의거 금융지원 및 공공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기업개발센터(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가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SBDC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제대군인, 여성 등 소수계층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조달국(Office of Government Contracting: GC)은 소기업, 취약기업, 여성기업이 연방정부 계약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기관은 매년 소기업 구매비율(목표)을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개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구매목표비율을 협의하고 있다.

#### 나. 일본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나, 별도의 장애인기업

및 창업에 관한 법률은 없으며,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독립행정법인으로 고령·장애인 고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물품조달과 관계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거래에 관한 요강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인 '나가사키시'우선조치 사항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다. 영국

영국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보장으로 주류경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별도의 장애인기업 관련 통계자료 작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기업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여 저개발지역 및 소수민족에 포함하여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 개발, 공공구매 활동, 경영·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기업(Social Enterprises)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고용 기업 및 저개발·낙후지역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자영업 창업보다는 주로 고용주의 차별개선에 두었으나, 최근 사회취약계층의 창업촉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기업 15,000개가 475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33%가 건강·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그리고 89%가 대도시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기업이란 민간기업이지만 공익을 위해 활동하며, 주된 목적은 기업 이익의 최대화가 아니라 사회통합,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한 혁신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절은 "김백수, 박경순(2008).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천현장에서 의 성공전략 연구. 재활복지, 12(3), pp251-271."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임.

## Ⅲ. 장애인 창업교육 현황 및 실태분석

####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대표 847명이며, 창업유지자 573명(67.7%), 창업예정자 217명(25.6%), 창업 후 휴폐업자 57명(67%), 총 3집단으로 구분된다.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창업유지자는 남성의 비율이 83.4%로 여성 16.6%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창업예정자(남성 68.7%, 여성 31.3%), 창업 후 휴폐업자(남성 80.7%, 여성 19.3%)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창업예정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창업유지자는 50대의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30.0%), 60대 이상(18.7%), 30대 이하(11.5%) 순이었다. 창업예정자의 경우도 50대(34.1%), 40대(30.0%) 순으로 높았으나 30대 이하의 비율이

22.6%로 60대 이상(134%)에 높다는 차이가 있었다. 창업 후 휴페업자는 60대 이상(31.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26.3%), 30대 이하(22.8%), 40대(19.3%)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창업유지자는 대졸자의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졸(24.6%), 전문대졸(24.4%), 대학원졸(14.8%) 순이었다. 창업예정자 또한 대졸자의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비율차이는 다소 존재하나 창업자와 같이 고졸 이하(30.9%), 전문대졸(25.3%), 대학원졸(8.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창업 후 휴폐업자는 전문대졸자의 비율이 35.1%순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졸자 및 고졸 이하(각각 26.3%), 대학원졸(12.3%) 순이었다.

장애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창업유지자는 6급(35.6%), 5급(21.8%)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창업예정자는 6급(20.3%)과 2급(20.3%), 3급(19.4%), 창업 후 휴 폐업자는 3급(24.6%), 6급(22.8%)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차이가 있었다.

#### <표 Ⅲ-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χ²
	전체	573 (100.0)	217 (100.0)	57 (100.0)	
Ан	남성	478 (83.4)	149 (68.7)	46 (80.7)	21.06 ***
성별	여성	95 (16.6)	68 (31.3)	11 (19.3)	21.00
	30대 이하	66 (11.5)	49 (22.6)	13 (22.8)	
연령	40대	172 (30.0)	65 (30.0)	11 (19.3)	29.07 ***
연당	50대	228 (39.8)	74 (34.1)	15 (26.3)	
	60대 이상	107 (18.7)	29 (13.4)	18 (31.6)	
	고졸 이하	141 (24.6)	67 (30.9)	15 (26.3)	
학력	전문대	140 (24.4)	55 (25.3)	20 (35.1)	10.50
악덕	대학교	207 (36.1)	76 (35.0)	15 (26.3)	10.56
	대학원(석사/박사) 졸업	85 (14.8)	19 (8.8)	7 (12.3)	

	구분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X <sup>2</sup>
	A 1 = 1	1급	34 (5.9)	36 (16.6)	7 (12.3)	
	심한 장애인	2급	56 (9.8)	44 (20.3)	9 (15.8)	
장애	0415	3급	95 (16.6)	42 (19.4)	14 (24.6)	57.32 ***
등급	심하지	4급	59 (10.3)	17 (7.8)	8 (14.0)	57.32
	않은 장애인	5급	125 (21.8)	34 (15.7)	6 (10.5)	
		6급	204 (35.6)	44 (20.3)	13 (22.8)	

주: \*p < .05, \*\*p < .01 \*\*\*p < .001

#### 2. 창업환경 특성

응답자들의 창업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연도를 살펴보면, 창업유지자, 창업 후 휴페업자 모두 2017년 이후가 각각 37.3%, 38.6%로 가장 높았다. 단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경우, 창업유지자는 2010년 이전(31.9%)이었으며, 창업 후 휴페업자는 2014~2016년(29.8%)이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결심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창업유지자, 창업 후 휴폐업자 모두 32.3%, 43.9%로 가장 높았다. 단, 창업유지자의 경우, 1년 이상의 비율(1년~2년 미만, 2년 이상)이 41.5%로 창업 후 휴폐업자 17.5%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예장자에게 실제 창업 준비여부를 질문한 결과, 58.5%가 실제 창업준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소재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비율이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 자 모두 각각 47.6%, 45.6%, 50.9%로 가장 높았다. 또한 3집단 모두 경상권의 비율이 각각 20.4%, 20.7%, 26.3%로 수도권 다음으로 높았다.

업체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 업자 모두 각각 56.5%, 62.2%, 70.2%로 가장 높았다. 단 창업유지자의 경우, 법인 의 비율이 42.4%로 창업예정자(16.6%), 창업 후 휴폐업자(24.6%)에 비해 높았다 는 차이가 있었다. 주 업종을 살펴보면 창업유지자의 경우 제조업(33.7%),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 매업(각 23.1%)의 비율이 높았지만 창업예정자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의 비율이 50.8%로 절반에 가깝다는 차이가 있었다. 창업 후 휴폐업자는 제조업(34.0%), 도/소매업(30.2%)의 비율이 높았다.

투입자금을 살펴보면 창업유지자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의 비율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천만원 미만의 비율이 30.5%로 높았다. 그러나 창업예정자 및 창업 후 휴폐업자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을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33.6%, 3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창업유지자 집단의 경우 비교적 창업 시 투입자금이 많았던 집단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창업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장애인종합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교육경험의 경우, 창업유지자의 경험비율은 44.0%로 창업예정자 97.7%, 창업 후 휴폐업자 86.0%에 비해 매우 낮았다. 관련 업종 종사경험의 경우, 창업유지자 76.8%, 창업예정자 67.3%, 창업 후 휴폐업자 54.4%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련자격증 유무의 경우 창업유지자 36.1%, 창업예정자 39.6%, 창업 후 휴폐업자 26.3%로 경험비율이 있었다. 다른 사업체 창업 경험의 경우, 창업유지자 44.5%, 창업예정자 36.9%, 창업 후 휴폐업자 49.1%로 경험비율이 있었다. 가족 및 지인 사업운영 경험의 경우, 창업유지자 42.4%, 창업예정자 55.3%, 창업 후 휴폐업자 52.6%로 경험비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창업의 경우, 창업유지자 9.8%, 창업예정자 18.4%, 창업 후 휴폐업자 15.8%로 경험비율이 있었으며, 이는 다른 경험에 비해 비교적 매우 낮은비율이었다.

#### <표 Ⅲ-2〉 창업환경 특성

단위: 명(%)

구분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X <sup>2</sup>
전체	573 (100.0)	217 (100.0)	57 (100.0)	

	구분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χ²	
	2010년 이전	183 (31.9)		12 (21.1)	·	
창업	2011~2013년	60 (10.5)		6 (10.5)		
연도	2014~2016년	116 (20.2)		17 (29.8)	-	
	2017년 이후	214 (37.3)		22 (38.6)		
결심부터	6개월 미만	150 (26.2)	-	22 (38.6)		
실제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5 (32.3)		25 (43.9)		
창업까지	1년 이상~2년 미만	106 (18.5)		4 (7.0)	-	
소요기간	2년 이상	132 (23.0)		6 (10.5)		
실제 창업	실제 준비		127 (58.5)			
준비여부	주비 하지 않음	-	90 (41.5)	-	-	
	수도권	273 (47.6)	99 (45.6)	29 (50.9)		
	충청권	74 (12.9)	34 (15.7)	5 (8.8)	5.042	
기업 소재지	경상권	117 (20.4)	45 (20.7)	15 (26.3)		
エハハ	호남권	70 (12.2)	21 (9.7)	5 (8.8)		
	강원 및 제주도	39 (6.8)	18 (8.3)	3 (5.3)		
	개인사업체	324 (56.5)	135 (62.2)	40 (70.2)		
업체	법인	243 (42.4)	36 (16.6)	14 (24.6)		
형태	프랜차이즈	6 (1.0)	13 (6.0)	3 (5.3)	-	
	결정하지 않음	- (-)	33 (15.2)	- (-)		
	개인서비스업	128 (23.1)	100 (50.8)	10 (18.9)		
	제조업	187 (33.7)	22 (11.2)	18 (34.0)		
주 업종	도/소매업	128 (23.1)	28 (14.2)	16 (30.2)	149.27 ***	
	건설업	90 (16.2)	6 (3.0)	1 (1.9)		
	숙박/음식업	22 (4.0)	41 (20.8)	8 (15.1)		
	3천만원 미만	175 (30.5)	73 (33.6)	22 (38.6)		
투입	3~5천만원 미만	91 (15.9)	64 (29.5)	15 (26.3)	44.76 ***	
자금	5~7천만원 미만	77 (13.4)	40 (18.4)	8 (14.0)	44.70	
	7천만원 이상	230 (40.1)	40 (18.4)	12 (21.1)		

구분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χ²	
	창업교육경험	있음	252 (44.0)	212 (97.7)	49 (86.0)	206.66 ***	
	(종합지원센터)	없음	321 (56.0)	5 (2.3)	8 (14.0)	200.00	
	관련 업종	있음	440 (76.8)	146 (67.3)	31 (54.4)	17.72 ***	
	종사경험	없음	133 (23.2)	71 (32.7)	26 (45.6)	17.72	
	관련 자격증	있음	207 (36.1)	86 (39.6)	15 (26.3)	3.50	
창업관련	유무	없음	366 (63.9)	131 (60.4)	42 (73.7)	3.30	
경험	다른 사업체	있음	255 (44.5)	80 (36.9)	28 (49.1)	4.72	
	창업경험	없음	318 (55.5)	137 (63.1)	29 (50.9)	4.72	
	가족 및 지인	있음	243 (42.4)	120 (55.3)	30 (52.6)	11.47 *	
	사업운영 경험	없음	330 (57.6)	97 (44.7)	27 (47.4)	11.47	
	모의 창업	있음	56 (9.8)	40 (18.4)	9 (15.8)	11.52 *	
	경험	없음	517 (90.2)	177 (81.6)	48 (84.2)	11.52	

주 1) 창업예정자의 경우, 향후 계획을 질문함.

## 3. 창업에서의 애로사항

#### 가.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창업준비단계에서 애로사항을 질문한 결과, 자금조달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8.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다음으로는 판로확보(15.1%),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 당성 분석(13.9%), 인력확보 및 관리(8.3%)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에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창업자금을 마련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인식은 응답자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창업유지자와 창업예정자의 경우, 자금조달을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0.8%, 53.0%로 가장 높았지만, 창업 후 휴폐업자의 경우는 14.0%로 낮았고 오히려,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응답한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창업예정자의 경우도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3%

<sup>2)</sup> 창업연도, 결심부터 창업까지 소요기간, 실제 창업준비 여부, 업체 형태는 창업예정자의 옹답항 목이 불일치하여 차이검정을 수행하지 않음.

<sup>3) \*</sup>p < .05, \*\*p < .01 \*\*\*p < .001

로써, 창업유지자의 응답비율 7.3%와 차이가 있었다.

#### <표 Ⅲ-3>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조달	판로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전체	847	414	128	118	70	55	45	17
	(100.0)	(48.9)	(15.1)	(13.9)	(8.3)	(6.5)	(5.3)	(2.0)
- 창업 유지자	573 (100.0)	291 (50.8)	114 (19.9)	42 (7.3)	53 (9.2)	40 (7.0)	27 (4.7)	6 (1.0)
창업	217	115	9	44	14	12	13	10
예정자	(100.0)	(53.0)	(4.1)	(20.3)	(6.5)	(5.5)	(6.0)	(4.6)
창업 후	57	8	5	32	3	3	5	1 (1.8)
휴폐업자	(100.0)	(14.0)	(8.8)	(56.1)	(5.3)	(5.3)	(8.8)	

주 1) 창업예정자에게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사항을 질문함.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 해석해보기 위해,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별 응답자 일반 적 특성 및 창업환경 특성 차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 1) 창업유지자의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4〉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χ²
	전체	573 (100.0)	291 (50.8)	114 (19.9)	42 (7.3)	53 (9.2)	40 (7.0)	27 (4.7)	6 (1.0)	-
1144	남성	478 (100.0)	248 (51.9)	93 (19.5)	37 (7.7)	42 (8.8)	32 (6.7)	21 (4.4)	5 (1.0)	
성별	여성	95 (100.0)	43 (45.3)	21 (22.1)	5 (5.3)	11 (11.6)	8 (8.4)	6 (6.3)	1 (1.1)	3.26
	30대 이하	66 (100.0)	36 (54.5)	10 (15.2)	5 (7.6)	6 (9.1)	4 (6.1)	3 (4.5)	2 (3.0)	
연령	40대	172 (100.0)	79 (45.9)	35 (20.3)	13 (7.6)	24 (14.0)	8 (4.7)	12 (7.0)	1 (0.6)	28.35
28	50대	228 (100.0)	128 (56.1)	40 (17.5)	20 (8.8)	15 (6.6)	19 (8.3)	5 (2.2)	1 (0.4)	20.33
	60대 이상	107 (100.0)	48 (44.9)	29 (27.1)	4 (3.7)	8 (7.5)	9 (8.4)	7 (6.5)	2 (1.9)	
	고졸 이하	141 (100.0)	84 (59.6)	22 (15.6)	9 (6.4)	7 (5.0)	13 (9.2)	5 (3.5)	1 (0.7)	
÷134	전문대	140 (100.0)	70 (50.0)	32 (22.9)	9 (6.4)	13 (9.3)	9 (6.4)	6 (4.3)	1 (0.7)	05.40
학력	대학교	207 (100.0)	103 (49.8)	38 (18.4)	16 (7.7)	18 (8.7)	15 (7.2)	13 (6.3)	4 (1.9)	25.16
	대학원 이상	85 (100.0)	34 (40.0)	22 (25.9)	8 (9.4)	15 (17.6)	3 (3.5)	3 (3.5)	- (-)	
장애	1~3급	151 (100.0)	69 (45.7)	31 (20.5)	18 (11.9)	14 (9.3)	9 (6.0)	8 (5.3)	2 (1.3)	7.50
등급	4~6급	422 (100.0)	222 (52.6)	83 (19.7)	24 (5.7)	39 (9.2)	31 (7.3)	19 (4.5)	4 (0.9)	7.59

주: \*p < .05, \*\*p < .01 \*\*\*p < .001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 업종, 창업교육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 업종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자금조달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건설업, 숙박/음식업, 기타의 경우 판로확보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3.3%, 9.1%, 11.1%로

<sup>2)</sup> x<sup>2</sup>= 154.51, p<.001(df=12)

창업 후 휴폐업자의 경우, 사례수가 57명으로 차이분석의 결과가 신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함.

낮은 편이었다(개인서비스업: 21.1%, 제조업: 22.5%, 도/소매업: 22.7%). 또한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체 사례수가 낮아 신뢰로운 해석은 어렵지만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기술 및 제품력 확보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8.2%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창업교육경험의 경우,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자금조달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0.4%, 51.1%로 가장 높았지만 경험자는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0.7%로 비경험자 4.7%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비경험자는 인력확보 및 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1.5%로 경험자 6.3%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 Ⅲ-5〉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x²
	전체	573 (100.0)	291 (50.8)	114 (19.9)	42 (7.3)	53 (9.2)	40 (7.0)	27 (4.7)	6 (1.0)	-
	개인 사업체	324 (100.0)	155 (47.8)	73 (22.5)	28 (8.6)	24 (7.4)	24 (7.4)	15 (4.6)	5 (1.5)	
업체 형태	법인	243 (100.0)	131 (53.9)	41 (16.9)	14 (5.8)	29 (11.9)	16 (6.6)	11 (4.5)	(0.4)	15.53
	프랜차이즈 및 기타	6 (100.0)	5 (83.3)	- (-)	- (-)	- (-)	- (-)	1 (16.7)	- (-)	

	구분	전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χ²
	개인 서비스업	128 (100.0)	56 (43.8)	27 (21.1)	9 (7.0)	20 (15.6)	11 (8.6)	2 (1.6)	3 (2.3)	
	제조업	187 (100.0)	93 (49.7)	42 (22.5)	11 (5.9)	15 (8.0)	10 (5.3)	16 (8.6)	- (-)	
<b>T</b> 0. <b>T</b>	도/소매업	128 (100.0)	71 (55.5)	29 (22.7)	9 (7.0)	8 (6.3)	5 (3.9)	6 (4.7)	- (-)	
주 업종	건설업	90 (100.0)	52 (57.8)	12 (13.3)	7 (7.8)	7 (7.8)	9 (10.0)	1 (1.1)	2 (2.2)	49.28
	숙박/ 음식업	22 (100.0)	9 (40.9)	2 (9.1)	4 (18.2)	1 (4.5)	4 (18.2)	1 (4.5)	1 (4.5)	
	기타	18 (100.0)	10 (55.6)	2 (11.1)	2 (11.1)	2 (11.1)	1 (5.6)	1 (5.6)	- (-)	
	3천만원 미만	175 (100.0)	77 (44.0)	42 (24.0)	16 (9.1)	17 (9.7)	13 (7.4)	6 (3.4)	4 (2.3)	
투입 자금	3~7천만원 미만	168 (100.0)	79 (47.0)	40 (23.8)	11 (6.5)	13 (7.7)	14 (8.3)	10 (6.0)	1 (0.6)	19.48
	7천만원 이상	230 (100.0)	135 (58.7)	32 (13.9)	15 (6.5)	23 (10.0)	13 (5.7)	11 (4.8)	1 (0.4)	
창업	있음	252 (100.0)	127 (50.4)	49 (19.4)	27 (10.7)	16 (6.3)	16 (6.3)	16 (6.3)	1 (0.4)	45.04*
교육 경험	없음	321 (100.0)	164 (51.1)	65 (20.2)	15 (4.7)	37 (11.5)	24 (7.5)	11 (3.4)	5 (1.6)	15.81*
 관련 업종	있음	440 (100.0)	220 (50.0)	83 (18.9)	32 (7.3)	44 (10.0)	35 (8.0)	21 (4.8)	5 (1.1)	5.44
종사 경험	없음	133 (100.0)	71 (53.4)	31 (23.3)	10 (7.5)	9 (6.8)	5 (3.8)	6 (4.5)	1 (0.8)	5.14
 관련 자격증	있음	207 (100.0)	114 (55.1)	30 (14.5)	15 (7.2)	20 (9.7)	16 (7.7)	8 (3.9)	4 (1.9)	9.17
사격증 유무	없음	366 (100.0)	177 (48.4)	84 (23.0)	27 (7.4)	33 (9.0)	24 (6.6)	19 (5.2)	2 (0.5)	9.17

아이템

## 2) 창업예정자의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주: \*p〈.05, \*\*p〈.01 \*\*\*p〈.001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6〉 창업예정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χ²
	전체	217 (100.0)	115 (53.0)	9 (4.1)	44 (20.3)	14 (6.5)	12 (5.5)	13 (6.0)	10 (4.6)	-
성별	남성	149 (100.0)	80 (53.7)	6 (4.0)	27 (18.1)	10 (6.7)	11 (7.4)	8 (5.4)	7 (4.7)	4.47
3E	여성	68 (100.0)	35 (51.5)	3 (4.4)	17 (25.0)	4 (5.9)	1 (1.5)	5 (7.4)	3 (4.4)	4.47
	30대 이하	49 (100.0)	27 (55.1)	4 (8.2)	9 (18.4)	1 (2.0)	4 (8.2)	2 (4.1)	2 (4.1)	
0131	40대	65 (100.0)	37 (56.9)	2 (3.1)	11 (16.9)	3 (4.6)	3 (4.6)	4 (6.2)	5 (7.7)	00.40
연령	50대	74 (100.0)	35 (47.3)	2 (2.7)	23 (31.1)	5 (6.8)	3 (4.1)	4 (5.4)	2 (2.7)	23.42
	60대 이상	29 (100.0)	16 (55.2)	1 (3.4)	1 (3.4)	5 (17.2)	2 (6.9)	3 (10.3)	1 (3.4)	
	고졸 이하	67 (100.0)	36 (53.7)	3 (4.5)	8 (11.9)	4 (6.0)	4 (6.0)	6 (9.0)	6 (9.0)	
-174	전문대	55 (100.0)	30 (54.5)	3 (5.5)	12 (21.8)	5 (9.1)	1 (1.8)	1 (1.8)	3 (5.5)	
학력	대학교	76 (100.0)	42 (55.3)	2 (2.6)	20 (26.3)	3 (3.9)	4 (5.3)	5 (6.6)	- (-)	21.36
	대학원 이상	19 (100.0)	7 (36.8)	1 (5.3)	4 (21.1)	2 (10.5)	3 (15.8)	1 (5.3)	1 (5.3)	
장애	1~3급	86 (100.0)	48 (55.8)	4 (4.7)	16 (18.6)	3 (3.5)	5 (5.8)	6 (7.0)	4 (4.7)	
등급	4~6급	131 (100.0)	67 (51.1)	5 (3.8)	28 (21.4)	11 (8.4)	7 (5.3)	7 (5.3)	6 (4.6)	2.69

주: \*p < .05, \*\*p < .01 \*\*\*p < .001

창업예정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창업 준비 여부, 관련 업종 종사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 창업 준비 여부의 경우, 실제 준비에 임하고 있는 응답자와 준비 하지 않는 응답자 모두, 자금조달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7.5%, 46.7% 가장 높았다. 하지만 실제 준비에 임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의 응답비율이 25.6%로 실제 준비에 임하고 있는 응답자 16.5%에 비해 높았고, 기술 및 제품력 확보 또한 11.1%로 실제 준비에 임하고 있는 응답자 2.4%비해 높았다

관련 업종 종사 경험의 경우, 경험자, 비경험자 모두 자금조달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9.6%, 39.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비경험자의 경우, 실제 창업 준비에 임하고 있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로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및 제품 력확보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8.2%, 9.9%로 경험자의 비율 16.4%, 4.1%에 비해 높았다.

〈표 Ⅲ-7〉 창업예정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X²
	전체	217 (100.0)	115 (53.0)	9 (4.1)	44 (20.3)	14 (6.5)	12 (5.5)	13 (6.0)	10 (4.6)	-
실제 창업	실제 준비	127 (100.0)	73 (57.5)	5 (3.9)	21 (16.5)	12 (9.4)	9 (7.1)	3 (2.4)	4 (3.1)	17.00**
준비 여부	준비 하지 않음	90 (100.0)	42 (46.7)	4 (4.4)	23 (25.6)	2 (2.2)	3 (3.3)	10 (11.1)	6 (6.7)	17.06**
	개인 사업체	135 (100.0)	76 (56.3)	5 (3.7)	21 (15.6)	10 (7.4)	9 (6.7)	10 (7.4)	4 (3.0)	
업체 형태	법인	36 (100.0)	21 (58.3)	1 (2.8)	9 (25.0)	2 (5.6)	1 (2.8)	- (-)	2 (5.6)	13.85
	프랜차이즈 및 기타	46 (100.0)	18 (39.1)	3 (6.5)	14 (30.4)	2 (4.3)	2 (4.3)	3 (6.5)	4 (8.7)	

	구분	전체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 확보 및 관리	복잡한 행정 절차	기술 및 제품력 확보	기타	χ²
	개인 서비스업	100 (100.0)	53 (53.0)	2 (2.0)	19 (19.0)	6 (6.0)	8 (8.0)	8 (8.0)	4 (4.0)	
	제조업	22 (100.0)	14 (63.6)	4 (18.2)	1 (4.5)	- (-)	- (-)	2 (9.1)	1 (4.5)	
주 업종	도/소매업	28 (100.0)	14 (50.0)	1 (3.6)	9 (32.1)	1 (3.6)	1 (3.6)	1 (3.6)	1 (3.6)	07.00
구 집은	건설업	6 (100.0)	2 (33.3)	1 (16.7)	1 (16.7)	1 (16.7)	- (-)	1 (16.7)	- (-)	37.93
	숙박/ 음식업	41 (100.0)	25 (61.0)	1 (2.4)	8 (19.5)	3 (7.3)	2 (4.9)	- (-)	2 (4.9)	
	기타	20 (100.0)	7 (35.0)	- (-)	6 (30.0)	3 (15.0)	1 (5.0)	1 (5.0)	2 (10.0)	
	3천만원 미만	73 (100.0)	48 (65.8)	2 (2.7)	8 (11.0)	3 (4.1)	4 (5.5)	4 (5.5)	4 (5.5)	
투입 자금	3~7천만원 미만	104 (100.0)	44 (42.3)	4 (3.8)	30 (28.8)	9 (8.7)	6 (5.8)	8 (7.7)	3 (2.9)	17.96
	7천만원 이상	40 (100.0)	23 (57.5)	3 (7.5)	6 (15.0)	2 (5.0)	2 (5.0)	1 (2.5)	3 (7.5)	
창업	있음	212 (100.0)	111 (52.4)	9 (4.2)	43 (20.3)	14 (6.6)	12 (5.7)	13 (6.1)	10 (4.7)	
교육 경험	없음	5 (100.0)	4 (80.0)	- (-)	1 (20.0)	- (-)	- (-)	- (-)	- (-)	2.07
- 관련 업종	있음	146 (100.0)	87 (59.6)	7 (4.8)	24 (16.4)	11 (7.5)	8 (5.5)	6 (4.1)	3 (2.1)	47.40**
종사 경험	없음	71 (100.0)	28 (39.4)	2 (2.8)	20 (28.2)	3 (4.2)	4 (5.6)	7 (9.9)	7 (9.9)	17.12 <sup>**</sup>
관련	있음	86 (100.0)	52 (60.5)	2 (2.3)	14 (16.3)	6 (7.0)	8 (9.3)	2 (2.3)	2 (2.3)	40.00
자격증 유무	없음	131 (100.0)	63 (48.1)	7 (5.3)	30 (22.9)	8 (6.1)	4 (3.1)	11 (8.4)	8 (6.1)	12.30

주: \*p< .05, \*\*p< .01 \*\*\*p< .001

이러한 차이를 종합하여,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중심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창업유지자 집단, 창업예정자 집단에서 자금조달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 결과, 창업유지자 집단, 창업예정자 집단 모두에서 자금조달 문제는 투입자금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창업자금이 많다고 해서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못함을 보여주며, 업종 및 창업 형태와 상관없이 다수의 장애인 창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창업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창업 후 휴페업자의 경우,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창업예정자의 경우도, 약 20.3%의 응답자가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응답하였다는 결과는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자금조달 문제와 더불어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이금진, 2008). 특히 창업예정자 차이분석 결과, 실제적인 창업 준비에임하지 않은 응답자, 관련 업종 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분석, 기술 및 제품력 확보의 애로사항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이전, 어떠한 사업을 창업할지 고민하는 준비기간이 존재하고 특히, 관련 업종 경험이 없는 창업예정자의 경우, 이러한 고민이 큰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창업유지자의 경우,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사업을 창업할지 고민하는 창업 준비자들 중 몇몇이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 나.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질문한 결과,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재무/자금관리(26.7%), 인력관리(16.2%), 회계/세무관리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창업 준비단계에서의 자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표 Ⅲ-8>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 관리	구매/ 생산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기타	없음
전체	630	228	168	102	70	19	15	10	18
	(100.0)	(36.2)	(26.7)	(16.2)	(11.1)	(3.0)	(2.4)	(1.6)	(2.9)
창업	573	207	151	95	65	15	15	8	17
유지자	(100.0)	(36.1)	(26.4)	(16.6)	(11.3)	(2.6)	(2.6)	(1.4)	(3.0)
창업 후	57	21	17	7	5	4	-	2	1 (1.8)
휴폐업자	(100.0)	(36.8)	(29.8)	(12.3)	(8.8)	(7.0)	(-)	(3.5)	

주 1) 창업예정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음.

위와 같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창업유지자 일반적 특성 및 창업환경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 특성에 따라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9〉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 관리	구매/ 생산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기타 및 없음	χ²
	전체	573 (100.0)	207 (36.1)	151 (26.4)	95 (16.6)	65 (11.3)	15 (2.6)	15 (2.6)	25 (4.4)	-
서벼	남성	478 (100.0)	170 (35.6)	126 (26.4)	83 (17.4)	54 (11.3)	12 (2.5)	14 (2.9)	19 (4.0)	2 50
성별	여성	95 (100.0)	37 (38.9)	25 (26.3)	12 (12.6)	11 (11.6)	3 (3.2)	1 (1.1)	6 (6.3)	3.52

	구분	전체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 관리	구매/ 생산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기타 및 없음	χ²
	30대 이하	66 (100.0)	26 (39.4)	15 (22.7)	10 (15.2)	9 (13.6)	1 (1.5)	2 (3.0)	3 (4.5)	
여러	40대	172 (100.0)	60 (34.9)	49 (28.5)	29 (16.9)	21 (12.2)	4 (2.3)	1 (0.6)	8 (4.7)	00.10
연령	50대	228 (100.0)	78 (34.2)	69 (30.3)	40 (17.5)	21 (9.2)	7 (3.1)	9 (3.9)	4 (1.8)	23.19
	60대 이상	107 (100.0)	43 (40.2)	18 (16.8)	16 (15.0)	14 (13.1)	3 (2.8)	3 (2.8)	10 (9.3)	
	고졸 이하	141 (100.0)	47 (33.3)	47 (33.3)	18 (12.8)	12 (8.5)	7 (5.0)	3 (2.1)	7 (5.0)	
+1=4	전문대	140 (100.0)	51 (36.4)	38 (27.1)	22 (15.7)	19 (13.6)	3 (2.1)	1 (0.7)	6 (4.3)	00.50
학력	대학교	207 (100.0)	75 (36.2)	54 (26.1)	35 (16.9)	20 (9.7)	3 (1.4)	8 (3.9)	12 (5.8)	28.58
	대학원 이상	85 (100.0)	34 (40.0)	12 (14.1)	20 (23.5)	14 (16.5)	2 (2.4)	3 (3.5)	- (-)	
장애	1~3급	151 (100.0)	57 (37.7)	46 (30.5)	18 (11.9)	15 (9.9)	4 (2.6)	4 (2.6)	7 (4.6)	4544
등급	4~6급	422 (100.0)	150 (35.5)	105 (24.9)	77 (18.2)	50 (11.8)	11 (2.6)	11 (2.6)	18 (4.3)	4.544

주: \*p < .05, \*\*p < .01 \*\*\*p < .001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라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업종, 관련 업종 종사 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업종의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건설업은 재무/자금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업은 인력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2.7%, 23.3%, 22.7%로 제조업, 도소매업 각각 13.4%, 6.3%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관련 업종 종사 경험의 경우, 경험자는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비율이 33.0%로 비경험자 46.6%에 비해 낮았다. 또한 재무/자금관리, 인력관리를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3%, 18.4%로 비경험자 23.3%, 10.5%에 비해 높았다.

<sup>2)</sup> x<sup>2</sup>= 7.686, p>.05(df=7)

〈표 Ⅲ-10〉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 관리	구매/ 생산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기타 및 없음	χ²
	전체	573 (100.0)	207 (36.1)	151 (26.4)	95 (16.6)	65 (11.3)	15 (2.6)	15 (2.6)	25 (4.4)	
	개인 사업체	324 (100.0)	123 (38.0)	87 (26.9)	44 (13.6)	37 (11.4)	8 (2.5)	9 (2.8)	16 (4.9)	
업체 형태	법인	243 (100.0)	81 (33.3)	61 (25.1)	51 (21.0)	28 (11.5)	7 (2.9)	6 (2.5)	9 (3.7)	10.09
	프랜차이즈 및 기타	6 (100.0)	3 (50.0)	3 (50.0)	- (-)	- (-)	- (-)	- (-)	- (-)	
	개인 서비스업	128 (100.0)	48 (37.5)	20 (15.6)	29 (22.7)	18 (14.1)	2 (1.6)	6 (4.7)	5 (3.9)	
	제조업	187 (100.0)	78 (41.7)	52 (27.8)	25 (13.4)	11 (5.9)	10 (5.3)	4 (2.1)	7 (3.7)	
조 어조	도/소매업	128 (100.0)	53 (41.4)	41 (32.0)	8 (6.3)	18 (14.1)	- (-)	3 (2.3)	5 (3.9)	00.00***
주 업종	건설업	90 (100.0)	16 (17.8)	29 (32.2)	21 (23.3)	15 (16.7)	3 (3.3)	1 (1.1)	5 (5.6)	68.92***
	숙박/ 음식업	22 (100.0)	9 (40.9)	5 (22.7)	5 (22.7)	1 (4.5)	- (-)	1 (4.5)	1 (4.5)	
	기타	18 (100.0)	3 (16.7)	4 (22.2)	7 (38.9)	2 (11.1)	- (-)	- (-)	2 (11.1)	
	3천만원 미만	175 (100.0)	65 (37.1)	41 (23.4)	29 (16.6)	21 (12.0)	4 (2.3)	5 (2.9)	10 (5.7)	
투입 자금	3~7천만원 미만	168 (100.0)	73 (43.5)	40 (23.8)	22 (13.1)	19 (11.3)	6 (3.6)	3 (1.8)	5 (3.0)	12.56
	7천만원 이상	230 (100.0)	69 (30.0)	70 (30.4)	44 (19.1)	25 (10.9)	5 (2.2)	7 (3.0)	10 (4.3)	
	있음	252 (100.0)	101 (40.1)	66 (26.2)	42 (16.7)	24 (9.5)	7 (2.8)	5 (2.0)	7 (2.8)	6.59
교육 경험	없음	321 (100.0)	106 (33.0)	85 (26.5)	53 (16.5)	41 (12.8)	8 (2.5)	10 (3.1)	18 (5.6)	0.59

	구분	전체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세무 관리	구매/ 생산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기타 및 없음	χ²
 관련 업종	있음	440 (100.0)	145 (33.0)	120 (27.3)	81 (18.4)	56 (12.7)	7 (1.6)	14 (3.2)	17 (3.9)	22.24***
종사 경험	없음	133 (100.0)	62 (46.6)	31 (23.3)	14 (10.5)	9 (6.8)	8 (6.0)	1 (0.8)	8 (6.0)	23.94***
관련	있음	207 (100.0)	63 (30.4)	53 (25.6)	41 (19.8)	30 (14.5)	4 (1.9)	5 (2.4)	11 (5.3)	0.15
자격증 유무	없음	366 (100.0)	144 (39.3)	98 (26.8)	54 (14.8)	35 (9.6)	11 (3.0)	10 (2.7)	14 (3.8)	9.15

주: \*p < .05, \*\*p < .01 \*\*\*p < .001

이러한 차이를 종합하여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창업자들의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은 판매/마케팅 관리 및 재무/자금관리라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애로사항을 응답한 전체 응답자 의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해 이 두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비율이 재무/자금관리를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는 점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창업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으로 50.8%의 응답자가 자금조달을 응답하였는데, 경영단계에서는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67.8%가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를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데 반해(중소벤처기업부, 2017), 장애인 창업자들은 판매/마케팅 관리를 인식하고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판매/마케팅 관리의 문제가 장애인 창업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창업유지자의 주 업종별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장애인 창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업종 종사 경험자가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비율이 비경 험자에 비해 낮았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한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장애인 창 업자의 경우, 창업 후, 판매/마케팅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 특히, 이 연구는 창업유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창업준비단계에서 판 로확보,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경험한 장애인 창업 자의 경우,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 판매/마케팅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65.8%, 42.9%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표 III-11> 참조).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인 창업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업종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창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단계에서부터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김백수, 박경순, 2008; 이은경, 2008; 이준우, 2006)

〈표 Ⅲ-11〉 창업준비단계와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비교

단위: 명(%)

경영단계 준비단계	전체	판매/ 마케팅 관리	재무/ 자금 관리	인력 관리	회계 <i> </i> 세무 관리	구매/ 생산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기타
전체	573	207	151	95	65	15	15	25
	(100.0)	(36.1)	(26.4)	(16.6)	(11.3)	(2.6)	(2.6)	(4.4)
자금조달	291	85	112	40	35	3	6	10
	(100.0)	(29.2)	(38.5)	(13.7)	(12.0)	(1.0)	(2.1)	(3.4)
판로확보	114 (100.0)	75 (65.8)	14 (12.3)	9 (7.9)	11 (9.6)	1 (0.9)	2 (1.8)	2 (1.8)
아이템 발굴 및	42	18	8	4	6	2	2	2
사업타당성 분석	(100.0)	(42.9)	(19.0)	(9.5)	(14.3)	(4.8)	(4.8)	(4.8)
인력확보 및 관리	53	9	10	28	3	1	-	2
	(100.0)	(17.0)	(18.9)	(52.8)	(5.7)	(1.9)	(-)	(3.8)
복잡한 행정절차	40	11	4	8	7	4	3	3
	(100.0)	(27.5)	(10.0)	(20.0)	(17.5)	(10.0)	(7.5)	(7.5)
기술 및 제품력	27	9	3	4	2	4	2	3
확보	(100.0)	(33.3)	(11.1)	(14.8)	(7.4)	(14.8)	(7.4)	(11.1)
기타	6	-	-	2	1	-	-	3
	(100.0)	(-)	(-)	(33.3)	(16.7)	(-)	(-)	(50.0)

주: x²= 203.23, p<.001(df=36)

## 4.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사항에 대한 인식

#### 가.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업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창업유지자들에게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총 10가지 지원 사항 수혜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 전은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28.4%), 2. 경영 교육(14.8%), 6. 기술 사업화 지원(10.6%), 9. 공간(사업장) 지원(9.9%)순으로 창업유지자들의 수혜비율이 높았다. 창업 후 1년 내 또한,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23.2%), 2. 경영 교육(11.5%), 6. 기술 사업화 지원(9.9%), 9. 공간(사업장) 지원(9.1%) 순으로 수혜 비율이 높았다. 창업 후 1-3년 내는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19.9%), 6. 기술 사업화 지원(7.3%), 2. 경영 교육(6.8%), 9. 공간(사업장) 지원 및 5. 판로 지원(각각 5.6%) 순으로 수혜 비율이 높았다. 창업 후 3-7년 내는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13.6%), 기술사업화 지원(5.9%), 경영교육(5.1%)순으로 수혜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원의 수혜 비율이 30%이하로 낮았으며, 기간이 흐를 수록 수혜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 2. 경영교육, 6. 기술사업화 지원의 세 가지 지원은 모든 기간에서 수혜 비율이 상위 3순위 안에 들었다.

〈표 Ⅲ-12〉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업 지원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창업 전	창업 후 1년 내	창업 후 1-3년 내	창업 후 3-7년 내
전체	522	468	356	254
	(100.0)	(100.0)	(100.0)	(100.0)
1. 기술/전문 지식 교육	41	34	24	15
	(7.2)	(5.9)	(4.2)	(2.6)
2. 경영 교육	85	66	39	29
	(14.8)	(11.5)	(6.8)	(5.1)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	163	133	114	78
	(28.4)	(23.2)	(19.9)	(13.6)

구분	창업 전	창업 후 1년 내	창업 후 1-3년 내	창업 후 3-7년 내
4. 투자 유치 지원	16	11	6	4
	(2.8)	(1.9)	(1.0)	(0.7)
5. 판로 지원	39	40	32	25
	(6.8)	(7.0)	(5.6)	(4.4)
6. 기술 사업화 지원	61	57	42	34
	(10.6)	(9.9)	(7.3)	(5.9)
7. 제품/서비스 홍보 지원	30	35	29	22
	(5.2)	(6.1)	(5.1)	(3.8)
8. 인력 채용 지원	26	28	28	28
	(4.5)	(4.9)	(4.9)	(4.9)
9. 공간(사업장) 지원	57	52	32	14
	(9.9)	(9.1)	(5.6)	(2.4)
10. 기타	4	12	10	5
	(0.7)	(2.1)	(1.7)	(0.9)
그 내 스 스 디				

주: 복수응답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총 10가지 지원 사항 별 수혜를 받은 창업유지자들에게 실질적 도움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 전은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80.4%), 6. 기술 사업화 지원(72.1%), 9. 공간(사업장) 지원(71.9%)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창업 후 1년 내 또한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88.7%), 6. 기술 사업화 지원(77.2%), 9. 공간(사업장) 지원(76.9%)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창업 후 1-3년 내 또한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88.6%), 6. 기술 사업화 지원(83.3%), 9. 공간(사업장) 지원(81.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단, 창업 후 3-7년 내는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92.3%)의 비율이 역시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8. 인력 채용 지원(82.1%)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 6. 기술 사업화 지원, 9. 공간(사업장) 지원은 실질적 도움 인식 비율이 기간과 상관없이 70%이상을 유지하며 비교적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또한 5. 판로 지원과 8. 인력 채용 지원은 창업 후 1년이지난 후 도움 인식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Ⅲ-13〉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업 지원 실질적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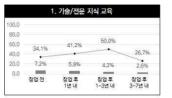
구분		창업 전	창업 후 1년 내	창업 후 1-3년 내	창업 후 3-7년 내
	전체	41	34	24	15
1. 기술/전문 지식 교육	도움됨	14 (34.1)	14 (41.2)	12 (50.0)	4 (26.7)
	전체	85	66	39	29
2. 경영 교육	도움됨	44 (51.8)	31 (47.0)	20 (51.3)	12 (41.4)
	전체	163	133	114	78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	도움됨	131 (80.4)	118 (88.7)	101 (88.6)	72 (92.3)
	전체	16	11	6	4
4. 투자 유치 지원	도움됨	8 (50.0)	6 (54.5)	4 (66.7)	2 (50.0)
	전체	39	40	32	25
5. 판로 지원	도움됨	22 (56.4)	21 (52.5)	23 (71.9)	18 (72.0)
	전체	61	57	42	34
6. 기술 사업화 지원	도움됨	44 (72.1)	44 (77.2)	35 (83.3)	26 (76.5)
	전체	30	35	29	22
7. 제품/서비스 홍보 지원	도움됨	14 (46.7)	18 (51.4)	15 (51.7)	11 (50.0)
	전체	26	28	28	28
8. 인력 채용 지원	도움됨	15 (57.7)	16 (57.1)	19 (67.9)	23 (82.1)
	전체	57	52	32	14
9. 공간(사업장) 지원	도움됨	41 (71.9)	40 (76.9)	26 (81.3)	11 (78.6)
<u> </u>	전체	4	12	10	5
10. 기타	도움됨	2 (50.0)	5 (41.7)	4 (40.0)	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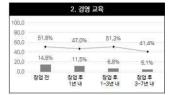
주. 각 지원 항목별 지원을 받은 응답자를 기준으로 비율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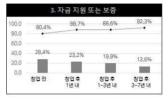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 및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창업자들의 정 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수혜 비율은 비교적 매우 낮은 것으로 관단된다. 10가지 지원 사항 수혜 여부에 대해 기간별로 질문한 결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제외 한 대부분의 수혜율이 10%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이 지날수록 모든 지원 사항의 수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Ⅲ-1] 참조). 특히, 비교적 수혜가 쉽다고 판단되는 교육훈련 지원, 즉 1. 기술/전문 지식 교육, 2. 경영 교육의 수혜율이 창업 전에도 15% 이상이 못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수의 장애인 창업자들이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에 수혜율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 창업자들의 실질적 도움 인식 비율은 창업에서의 애로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의 도움 인식비율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모두 창업 준비와 경영단계에서 자금조달 및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창업 후 경영단계에 애로사항으로 자금문제 인식과 더불어 판매/마케팅 관리 및 인력관리의 비율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의 도움 인식 비율을 살펴보면 5. 판로 지원과 8. 인력 채용지원의 경우, 창업 후 1년이 지난 후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그림Ⅲ-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창업자들의 창업 관련 애로사항이 시기에 따라 구분되고, 따라서 시기별 중점지원 사항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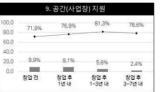














[그림 Ⅲ-1] 창업유지자의 기간별 창업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 나, 창업예정자의 창업하기 전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창업예정자들에게 창업하기 전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총 10가지 지원 사항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혜율의 경우, 2 경영교육(25.8%), 1. 기술/전문 지식 교육(18.0%)의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다른 지원사항은 수혜율이 6% 이하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창업유지자의 경우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의 수혜율이 28.4% 가장 높았다는 점과 차이가나는 결과였다.

지원 사항 별 실질적 도움 여부의 경우, 1. 기술/전문 지식 교육(64.1%), 5. 판로 지원(63.6%), 7. 제품/서비스 홍보 지원(60.0%) 2. 경영교육(57.1%)순으로 도움인식 비율이 높았다. 이 또한 창업유지자의 경우,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80.4%), 6. 기술 사업화 지원(72.1%), 9. 공간(사업장) 지원(71.9%)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표 Ⅲ-14〉 창업예정자의 창업하기 전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단위: 명(%)

		±1010	세지기	±1010	O T   T
구분	전체	୍ଷ ପ	<sup>훼정자</sup>	상입구	우지자
		수혜	도움 <sup>1)</sup>	수혜	도움 <sup>1)</sup>
전체	691	169	93	522	335
신세	(100.0)	(100.0)	(55.0)	(100.0)	(64.2)
1. 기술 <i> </i> 전문 지식 교육	80	39	25	41	14
1. 기월/한문 지구 교육	(11.6)	(18.0)	(64.1)	(7.2)	(34.1)
2. 경영 교육	141	56	32	85	44
2. 66 114	(20.4)	(25.8)	(57.1)	(14.8)	(51.8)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	176	13	5	163	131
5. 서급 시원 모든 모6	(25.5)	(6.0)	(38.5)	(28.4)	(80.4)
4. 투자 유치 지원	26	10	1	16	8
4. 구시 표시 시원	(3.8)	(4.6)	(10.0)	(2.8)	(50.0)
5. 판로 지원	50	11	7	39	22
5. 근도 시원	(7.2)	(5.1)	(63.6)	(6.8)	(56.4)
6. 기술 사업화 지원	66	5	5	61	44
0. 기울 시납의 시선	(9.6)	(2.3)	(100.0)	(10.6)	(72.1)
7. 제품/서비스 홍보 지원	40	10	6	30	14
7. 세점/시미그 등도 시전	(5.8)	(4.6)	(60.0)	(5.2)	(46.7)
8. 인력 채용 지원	36	10	5	26	15
0. 신탁 제공 시원	(5.2)	(4.6)	(50.0)	(4.5)	(57.7)
0 고기/시어자\ 지의	68	11	6	57	41
9. 공간(사업장) 지원	(9.8)	(5.1)	(54.5)	(9.9)	(71.9)
10. 기타	8	4	1	4	2
10. 714	(1.2)	(1.8)	(25.0)	(0.7)	(50.0)

주 1) 도움 인식 비율은 "도움 인식자/수혜자 \*100"의 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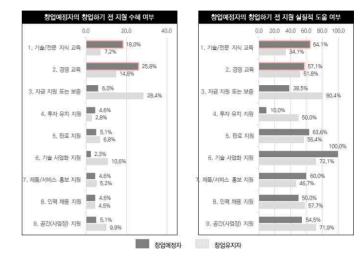
위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혜율 차이의 경우, 최근 장애인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제공되기 있기 때문이라 풀이가 가능하다. 실제 2010년 이후 장애인 지원 모델이 자립형 모델로 변화하면서 장애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장애인 창업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오문식, 201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6).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창업유지자들에 비해 창업예정자들은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단, 3. 자금 지원 또는 보증 및 6. 기술 사업화 지원의 경우, 창업예정자의 수혜율이 창업유지자에 비해 매우 낮은

<sup>2)</sup> 음영표시는 창업유지자들의 응답 결과이며, 앞서 분석한 내용과 동일함.

것으로 나타났기에 위와 같은 해석은 주의가 요구되며, 표집의 문제 등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질적 도움 인식 여부의 경우, 창업예정자와 창업유지자 별 도움의 판단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창업유지자의 경우, 창업을 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지원이 현재 기업 운영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도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에 반해 창업예정자는 현재의 지원이 자신의 창업 준비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예정자들은 창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역량항상 및 제품판매와 관련된 지원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창업유지자들은 현재 자신의 기업이 생존한데 있어 자금문제 및 기술지원에 놓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창업예정자들이 창업유지자들에 비해 1. 기술/전문 지식 교육, 2. 경영교육지원에 대한 수혜비율 및 도움 인식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Ⅲ-1] 참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마주해 있는 창업예정자들이 자신의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교육훈련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예정자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실제 장애인 창업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III-2] 창업예정자의 창업하기 전 지원 수혜 여부 및 실질적 도움 여부

#### 다.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기

창업유지자 및 창업 후 휴폐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 창업 후 1년 이상~3년 내 지원이 3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창업 후 1년 내 지원(30.8%), 창업 전 지원(20.0%), 창업 후 3년 이상~7년 내 지원(17.9%)로 가장 높았다. 단, 창업 휴폐업자는 창업 전 지원이 47.4%로 가장 높았고, 창업 후 1년 재 지원 또한 31.6%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Ⅲ-15〉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기

단위: 명(%)

구분	전체	창업 전 지원	창업 후 1년 내 지원	창업 후 1년 이상~ 3년 내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내 지원
전체	630	126	194	197	113
	(100.0)	(20.0)	(30.8)	(31.3)	(17.9)
창업	573	99	176	187	111
유지자	(100.0)	(17.3)	(30.7)	(32.6)	(19.4)
창업 후	57	27	18	10	2
휴폐업자	(100.0)	(47.4)	(31.6)	(17.5)	(3.5)

주 1) 창업예정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음.

위와 같은 차이와 관련하여,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 및 창업환경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기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16〉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시기 인식차이

단위: 명(%)

	구분	전체	창업 전 지원	창업 후 1년 내 지원	창업 후 1년 이상~ 3년 내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내 지원	χ²
	전체	630 (100.0)	126 (20.0)	194 (30.8)	197 (31.3)	113 (17.9)	-
성별	남성	524 (100.0)	99 (18.9)	164 (31.3)	166 (31.7)	95 (18.1)	2.40
성필	여성	106 (100.0)	27 (25.5)	30 (28.3)	31 (29.2)	18 (17.0)	2.40
	30대 이하	79 (100.0)	23 (29.1)	31 (39.2)	15 (19.0)	10 (12.7)	
여러	40대	183 (100.0)	38 (20.8)	59 (32.2)	56 (30.6)	30 (16.4)	44.04
연령	50대	243 (100.0)	43 (17.7)	68 (28.0)	83 (34.2)	49 (20.2)	14.21
	60대 이상	125 (100.0)	22 (17.6)	36 (28.8)	43 (34.4)	24 (19.2)	

	구분	전체	창업 전 지원	창업 후 1년 내 지원	창업 후 1년 이상~ 3년 내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내 지원	x²
	고졸 이하	156 (100.0)	32 (20.5)	52 (33.3)	54 (34.6)	18 (11.5)	
학력	전문대	160 (100.0)	36 (22.5)	47 (29.4)	51 (31.9)	26 (16.3)	10.07
학력	대학교	222 (100.0)	44 (19.8)	72 (32.4)	61 (27.5)	45 (20.3)	12.87
	대학원 이상	92 (100.0)	14 (15.2)	23 (25.0)	31 (33.7)	24 (26.1)	
장애	1~3급	174 (100.0)	43 (24.7)	53 (30.5)	55 (31.6)	23 (13.2)	5.67
등급	4~6급	456 (100.0)	83 (18.2)	141 (30.9)	142 (31.1)	90 (19.7)	5.07

주: \*p < .05, \*\*p < .01 \*\*\*p < .001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업체형태, 주 업종, 투입자금, 창업교육 경험, 관련 업종 종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업체 형태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 프랜차이즈 및 기타의 경우 창업후 1년 내 지원 인식 비율이 각각 32.7%, 44.4%로 가장 높았고 법인의 경우만 창업후 1년 내 지원을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 업종에 따라살펴보면, 도/소매업은 창업후 1년 내 지원을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 업종에 따라살펴보면, 도/소매업은 창업 후 1년 내 지원을 인식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은 창업 전 지원을 인식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주로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업체 형태, 업종의 경우, 빠른 시기의 지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창업 시 투입자금의 경우도 3천만원 미만은 창업후 1년 내 지원을 인식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은 반면, 7천만원 이상은 창업후 1년 이상~3년 내 지원을 인식하는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창업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경험자, 비 경험자 모두 창업 후 1년 이 상~3년 내 지원을 인식한 비율이 각각 29.6%, 32.8%로 가장 높았지만 경험자의 경우, 창업 전을 응답한 비율이 25.9%로 상당히 높았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관련 업종 중사 경험은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경

<sup>2)</sup> x<sup>2</sup>= 34..532, p<.001(df=3)

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관련 업종 종사 경험자는 창업 후 1년 이상~3년 내 지원을 인식하는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지만 비경험자는 창업 후 1년 내 지원을 인식하는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표 Ⅲ-17〉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필요 시기 인식 차이 단위: 명(%)

	구분	전체	창업 전 지원	창업 후 1년 내 지원	창업 후 1년 이상~ 3년 내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내 지원	x²
	전체	630 (100.0)	126 (20.0)	194 (30.8)	197 (31.3)	113 (17.9)	-
	개인 사업체	364 (100.0)	85 (23.4)	119 (32.7)	112 (30.8)	48 (13.2)	
업체 형태	법인	257 (100.0)	38 (14.8)	71 (27.6)	83 (32.3)	65 (25.3)	22.44**
	프랜차이즈 및 기타	9 (100.0)	3 (33.3)	4 (44.4)	2 (22.2)	- (-)	
	개인 서비스업	138 (100.0)	31 (22.5)	36 (26.1)	44 (31.9)	27 (19.6)	
	제조업	205 (100.0)	32 (15.6)	59 (28.8)	68 (33.2)	46 (22.4)	
주 업종	도/소매업	144 (100.0)	28 (19.4)	58 (40.3)	41 (28.5)	17 (11.8)	25.80 <sup>*</sup>
구 합청	건설업	91 (100.0)	17 (18.7)	27 (29.7)	31 (34.1)	16 (17.6)	25.60
	숙박/ 음식업	30 (100.0)	12 (40.0)	10 (33.3)	6 (20.0)	2 (6.7)	
	기타	22 (100.0)	6 (27.3)	4 (18.2)	7 (31.8)	5 (22.7)	
	3천만원 미만	197 (100.0)	38 (19.3)	79 (40.1)	54 (27.4)	26 (13.2)	
투입 자금	3~7천만원 미만	191 (100.0)	43 (22.5)	61 (31.9)	63 (33.0)	24 (12.6)	27.91***
	7천만원 이상	242 (100.0)	45 (18.6)	54 (22.3)	80 (33.1)	63 (26.0)	

	구분	전체	창업 전 지원	창업 후 1년 내 지원	창업 후 1년 이상~ 3년 내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내 지원	χ²
 창업 교육	있음	301 (100.0)	78 (25.9)	87 (28.9)	89 (29.6)	47 (15.6)	13.01**
교육 경험	없음	329 (100.0)	48 (14.6)	107 (32.5)	108 (32.8)	66 (20.1)	13.01
 관련 업종	있음	471 (100.0)	91 (19.3)	135 (28.7)	149 (31.6)	96 (20.4)	9.49
종사 경험	없음	159 (100.0)	35 (22.0)	59 (37.1)	48 (30.2)	17 (10.7)	9.49
관련 자격증	있음	222 (100.0)	44 (19.8)	68 (30.6)	65 (29.3)	45 (20.3)	1.48
사건등 유무	없음	408 (100.0)	82 (20.1)	126 (30.9)	132 (32.4)	68 (16.7)	1.48

주: \*p < .05, \*\*p < .01 \*\*\*p < .001

이상의 결과를 보면 업체 형태, 업종, 창업 자금, 관련 경험 등에 따라 창업 지원이 도움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자금의 경우 7천만원 미만인 경우전체 50% 이상이 창업전이나 창업 후 1년 이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창업 후 1년 이후부터 7년 이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라.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애로사항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을 한번이라도 수혜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을 질문한 결과, 지원준비 절차 불편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원기회 부족(17.9%), 지원 내용/규모 불충분(17.9%), 지속적 관리 부족(13.3%) 순이었다. 단, 창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기회부족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8.4%로 가장 많았고, 창업후 휴페업자의 경우에는 지원준비 절차 불편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0.3%로 가

장 높았다.

〈표 Ⅲ-18〉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원 준비 절차 불편	지원 기회 부족	지원 내용/규모 불충분	지속적 관리 부족	전문성 부족	지원 진행 신속성 부족	기타 및 해당사항 없음
전체	487	98	87	87	65	45	28	77
	(100.0)	(20.1)	(17.9)	(17.9)	(13.3)	(9.2)	(5.7)	(15.8)
창업	366	76	58	73	52	30	25	52
유지자	(100.0)	(20.8)	(15.8)	(19.9)	(14.2)	(8.2)	(6.8)	(14.2)
창업	88	12	25	9	7	13	-	22
예정자	(100.0)	(13.6)	(28.4)	(10.2)	(8.0)	(14.8)	(-)	(25.0)
창업 후	33	10	4	5	6	2	3	3
휴폐업자	(100.0)	(30.3)	(12.1)	(15.2)	(18.2)	(6.1)	(9.1)	(9.1)

주:  $\chi^2$ = 33.52, p<.01(df=12)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해석해보기 위해 일정 사례수를 충족한 창업유지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지원 기회 부족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고, 지원준비 절차 불편은 11.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다. 이에 반해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두 지원 준비 절차 불편을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1.4%, 23.1%, 20.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지원 내용/규모 불충분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30대 10.3%, 40대 17.9%, 50대: 20.2%, 60대 이상: 20.7%).

<표 Ⅲ-19〉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원 준비 절차 불편	지원 기회 부족	지원 내용/ 규모 불충분	지속적 관리 부족	전문성 부족	지원 진행 신속성 부족	기타 및 해당 사항 없음	χ²
----	----	----------------------	----------------	------------------------	-----------------	-----------	-----------------------	---------------------------	----

	구분	전체	지원 준비 절차 불편	지원 기회 부족	지원 내용/ 규모 불충분	지속적 관리 부족	전문성 부족	지원 진행 신속성 부족	기타 및 해당 사항 없음	χ²
	전체	487 (100.0)	98 (20.1)	87 (17.9)	87 (17.9)	65 (13.3)	45 (9.2)	28 (5.7)	77 (15.8)	
ИН	남성	384 (100.0)	73 (19.0)	70 (18.2)	73 (19.0)	52 (13.5)	36 (9.4)	19 (4.9)	61 (15.9)	4.71
성별	여성	103 (100.0)	25 (24.3)	17 (16.5)	14 (13.6)	13 (12.6)	9 (8.7)	9 (8.7)	16 (15.5)	4.71
	30대 이하	87 (100.0)	10 (11.5)	28 (32.2)	9 (10.3)	14 (16.1)	8 (9.2)	6 (6.9)	12 (13.8)	
여러	40대	140 (100.0)	30 (21.4)	17 (12.1)	25 (17.9)	23 (16.4)	15 (10.7)	10 (7.1)	20 (14.3)	04.40*
연령	50대	173 (100.0)	40 (23.1)	32 (18.5)	35 (20.2)	17 (9.8)	16 (9.2)	5 (2.9)	28 (16.2)	31.49
	60대 이상	87 (100.0)	18 (20.7)	10 (11.5)	18 (20.7)	11 (12.6)	6 (6.9)	7 (8.0)	17 (19.5)	
	고졸 이하	99 (100.0)	29 (29.3)	16 (16.2)	15 (15.2)	13 (13.1)	6 (6.1)	4 (4.0)	16 (16.2)	
÷134	전문대	126 (100.0)	24 (19.0)	25 (19.8)	22 (17.5)	10 (7.9)	19 (15.1)	7 (5.6)	19 (15.1)	07.54
학력	대학교	183 (100.0)	34 (18.6)	33 (18.0)	27 (14.8)	29 (15.8)	16 (8.7)	11 (6.0)	33 (18.0)	27.54
	대학원 이상	79 (100.0)	11 (13.9)	13 (16.5)	23 (29.1)	13 (16.5)	4 (5.1)	6 (7.6)	9 (11.4)	
장애	1~3급	139 (100.0)	31 (22.3)	16 (11.5)	25 (18.0)	16 (11.5)	14 (10.1)	11 (7.9)	26 (18.7)	0.44
등급	4~6급	348 (100.0)	67 (19.3)	71 (20.4)	62 (17.8)	49 (14.1)	31 (8.9)	17 (4.9)	51 (14.7)	8.11

주. \*p < .05, \*\*p < .01 \*\*\*p < .001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업체 형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법인은 지원내용/규모 불충분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체는 지원준비 절차 불편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2.4%, 프랜차이즈 및 기타는 전문성 부족이 28.6%로 가장 높았다.

#### <표 Ⅲ-20>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원 준비 절차 불편	지원 기회 부족	지원 내용/ 규모 불충분	지속적 관리 부족	전문성 부족	지원 진행 신속성 부족	기타 및 해당 사항 없음	χ²
	전체	487 (100.0)	98 (20.1)	87 (17.9)	87 (17.9)	65 (13.3)	45 (9.2)	28 (5.7)	77 (15.8)	-
	개인 사업체	294 (100.0)	66 (22.4)	58 (19.7)	44 (15.0)	34 (11.6)	27 (9.2)	15 (5.1)	50 (17.0)	
업체 형태	법인	172 (100.0)	27 (15.7)	27 (15.7)	41 (23.8)	30 (17.4)	12 (7.0)	13 (7.6)	22 (12.8)	28.06**
	프랜차이즈 및 기타	21 (100.0)	5 (23.8)	2 (9.5)	2 (9.5)	1 (4.8)	6 (28.6)	- (-)	5 (23.8)	
	개인 서비스업	136 (100.0)	35 (25.7)	25 (18.4)	22 (16.2)	17 (12.5)	11 (8.1)	3 (2.2)	23 (16.9)	
	제조업	161 (100.0)	32 (19.9)	21 (13.0)	35 (21.7)	29 (18.0)	17 (10.6)	13 (8.1)	14 (8.7)	
주 업종	도/소매업	95 (100.0)	17 (17.9)	20 (21.1)	16 (16.8)	8 (8.4)	9 (9.5)	6 (6.3)	19 (20.0)	41.65
Т НО	건설업	38 (100.0)	6 (15.8)	7 (18.4)	5 (13.2)	5 (13.2)	4 (10.5)	2 (5.3)	9 (23.7)	41.03
	숙박/ 음식업	39 (100.0)	6 (15.4)	12 (30.8)	5 (12.8)	6 (15.4)	3 (7.7)	1 (2.6)	6 (15.4)	
	기타	18 (100.0)	2 (11.1)	2 (11.1)	4 (22.2)	- (-)	1 (5.6)	3 (16.7)	6 (33.3)	
	3천만원 미만	140 (100.0)	26 (18.6)	26 (18.6)	18 (12.9)	22 (15.7)	15 (10.7)	11 (7.9)	22 (15.7)	
투입 자금	3~7천만원 미만	173 (100.0)	40 (23.1)	31 (17.9)	28 (16.2)	20 (11.6)	15 (8.7)	7 (4.0)	32 (18.5)	11.63
	7천만원 이상	174 (100.0)	32 (18.4)	30 (17.2)	41 (23.6)	23 (13.2)	15 (8.6)	10 (5.7)	23 (13.2)	
창업 교육	있음	321 (100.0)	66 (20.6)	63 (19.6)	50 (15.6)	45 (14.0)	34 (10.6)	15 (4.7)	48 (15.0)	9.00
경험	없음	166 (100.0)	32 (19.3)	24 (14.5)	37 (22.3)	20 (12.0)	11 (6.6)	13 (7.8)	29 (17.5)	9.00

	구분	전체	지원 준비 절차 불편	지원 기회 부족	지원 내용/ 규모 불충분	지속적 관리 부족	전문성 부족	지원 진행 신속성 부족	기타 및 해당 사항 없음	χ²
	있음	360 (100.0)	77 (21.4)	64 (17.8)	64 (17.8)	45 (12.5)	35 (9.7)	20 (5.6)	55 (15.3)	0.54
종사 경험	없음	127 (100.0)	21 (16.5)	23 (18.1)	23 (18.1)	20 (15.7)	10 (7.9)	8 (6.3)	22 (17.3)	2.54
 관련 자격증	있음	171 (100.0)	36 (21.1)	29 (17.0)	31 (18.1)	25 (14.6)	14 (8.2)	11 (6.4)	25 (14.6)	1.33
유무	없음	316 (100.0)	62 (19.6)	58 (18.4)	56 (17.7)	40 (12.7)	31 (9.8)	17 (5.4)	52 (16.5)	1.33

주: \*p < .05, \*\*p < .01 \*\*\*p < .001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 및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지자체/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은 응답자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고름에도 불구하고, 지원 준비절차 불편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될 문제라 판단된다.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애인 창업자들은 지원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지원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절차 불편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수요자 배려에 있어 장애인 창업 지원 제도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 창업 지원 제도는 장애인 창업가 특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30대 이하의 젊은 창업가의 경우에는 지원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다고 판단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법인) 지원내용/규모가 불충분 하다는 인식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젊은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창업의 업체 형태 및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 관련 지원 사항 도움 수준

#### 가. 지원 사항 수혜 역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관련 지원 사항 도움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지원 사항 수혜여부를 분석한 결과, 1. 창업교육 수혜자의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 창업 사업화(12.0%),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9.1%), 4. 전시회 참가 지원(7.3%) 순이었으며, 1. 창업교육 및 2. 창업 사업화를 제외한 모든 지원의 수혜율이 10% 미만이었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원 사항에서 수혜율이 10% 미만이라 의미 있는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1. 창업 교육의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창업유지자는 수혜율이 29.3%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창업예정자는 73.7%로 높은 수준이었고 창업 후 휴폐업자 또한 57.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Ⅲ-2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지원 사항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창업유지자	창업예정자	창업 후 휴폐업자	χ²
전체	847	573	217	57	_
	(100.0)	(100.0)	(100.0)	(100.0)	
1. 창업 교육	361	168	160	33	132.78***
1. 성입 교육	(42.6)	(29.3)	(73.7)	(57.9)	132.70
2. 창업 사업화	102	79	17	6	5.40
2. 상업 사업와	(12.0)	(13.8)	(7.8)	(10.5)	5.40
3.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45	29	13	3	0.27
3. 성접 아이템 성신대외	(5.3)	(5.1)	(6.0)	(5.3)	0.27
4. 전시회 참가 지원	62	48	8	6	6.03 <sup>*</sup>
4. 신시외 삼가 시원	(7.3)	(8.4)	(3.7)	(10.5)	6.03
5. 시제품 제작 지원,	77	65	5	7	16.32***
지재권 출원 지원 등	(9.1)	(11.3)	(2.3)	(12.3)	10.32
C MDA TO	39	29	5	5	E 14
6. MBA 교육	(4.6)	(5.1)	(2.3)	(8.8)	5.14
7 HIO TIOI MO	366	302	50	14	65.10 <sup>***</sup>
7. 받은 지원 없음	(43.2)	(52.7)	(23.0)	(24.6)	05.10

주 1) 각 지원 항목별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빈도만 제시하였으며, 항목별 차이분석은 예와 아니오 의 응답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의미함.

#### 나, 지원 사항 도움 수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사항 도움 수준을 분석한 결과, 6. MBA 교육(4.00 점),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3.96점), 2. 창업 사업화(3.65점), 4. 전시회 참가 지원(3.60점), 3.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3.49점), 1. 창업교육(3.35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는 집단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6. MBA 교육(4.00점), 3.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3.38점), 1. 창업 교육(3.28점), 2. 창업 사업화(3.18점), 4. 전시회 참가 지원(3.13점),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2.80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창업 휴폐업자의 경우, 6. MBA 교육(4.00점), 4. 전시회 참가 지원(3.50점), 1. 창업 교육(3.06점), 2. 창업 사업화(3.00점),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2.86점), 3.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2.33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표 Ⅲ-2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지원 사항 도움 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361	3.35	1.06	-
1. 창업 교육	창업유지자	168	3.47	1.15	
1. 성접 교육	창업예정자	160	3.28	0.93	2.69
	창업 후 휴폐업자	33	3.06	1.06	
	전체	102	3.65	1.07	-
2. 창업 사업화	창업유지자	79	3.80	0.98	
2. 성립 사립화	창업예정자	17	3.18	1.24	3.72*
	창업 후 휴폐업자	6	3.00	1.26	
	전체	45	3.49	1.29	-
3. 창업 아이템	창업유지자	29	3.66	1.17	
경진대회	창업예정자	13	3.38	1.26	1.52
	창업 후 휴폐업자	3	2.33	2.31	

<sup>2) \*</sup>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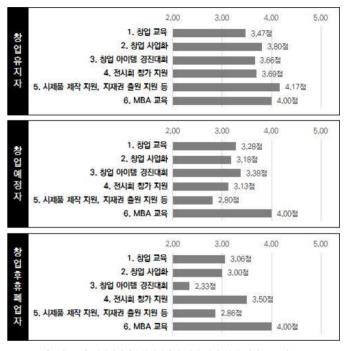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62	3.60	1.14	-
4. 전시회 참가	창업유지자	48	3.69	1.15	
지원	창업예정자	8	3.13	0.64	0.86
	창업 후 휴폐업자	6	3.50	1.52	
	전체	77	3.96	1.20	-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창업유지자	65	4.17	1.04	
시원, 시세전 출원 지원 등	창업예정자	5	2.80	0.84	7.37**
	창업 후 휴폐업자	7	2.86	1.77	
	전체	39	4.00	1.00	-
6. MBA 교육	창업유지자	29	4.00	1.07	
6. WIDA 业 <del>工</del>	창업예정자	5	4.00	0.71	0.00
	창업 후 휴폐업자	5	4.00	1.00	

주 1) 각 지원 항목별 지원을 받은 응답자를 사례수(n)로 하여, 평균(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어느 정도 도움이 됨. 5점: 매우 도움이 됨) 항목별 차이 분석은 집단별 점수 차이를 의미함.

#### 2) \*p < .05, \*\*p < .01 \*\*\*p < .001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유지자는 창업예정자 및 창업 후 휴폐업자에 비해 모든 지원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창업예정자는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에 대한 점수가 2.80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고, 창업후 휴폐업자의 경우에는 3. 창업아이템 경진대회(2.33점),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2.86점)에 대한 점수가 보통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었다([그림 Ⅲ-3] 참조).

전반적으로 창업유지자의 도움 인식 수준이 높은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창업유지자의 경우, 이미 창업을 한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명확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1. 창업 교육이나 6. MBA 교육 등은 관심을 끌기 좋고, 흥미로 들을수는 있다. 그런데 실제 창업유지자에게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나머지 집단에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5. 시제품 제작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등 이었다. 이러한결과는 창업유지자의 경우, 자신의 창업한 사업 및 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받고, 사업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 이해된다.



[그림 Ⅲ-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지원 사항 도움 수준

## 6.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 및 폐업 이유에 대한 인식

#### 가. 창업 성공요인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금조달능력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판로확보(21.9%), 창업유망 아이템 선정(13.7%), 경영 및 마케팅 능력(13.2%)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대해 창업유지자 및 창업 후 휴폐업자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표 Ⅲ-23>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 조달 능력	판로 확보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경영 및 마케팅 능력	제품의 품질 (차별성)	인적 네트 워크	입지 (상권) 선정	브랜드 인지도 및 기타
전체	630	209	138	86	83	35	34	33	12
	(100.0)	(33.2)	(21.9)	(13.7)	(13.2)	(5.6)	(5.4)	(5.2)	(1.9)
- 창업 유지자	573 (100.0)	189 (33.0)	129 (22.5)	74 (12.9)	79 (13.8)	32 (5.6)	32 (5.6)	26 (4.5)	12 (2.1)
창업 후	57	20	9	12	4	3	2	7	-
휴폐업자	(100.0)	(35.1)	(15.8)	(21.1)	(7.0)	(5.3)	(3.5)	(12.3)	(-)

주:  $\chi^2$ = 13.009, p>.05(df=7)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창업 성공요인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을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2%, 40.0%, 34.3%로 가장 높았으나 대학원 이상은 판로확보를 응답한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을 위한 자금문제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나타난결과라 풀이된다.

#### <표 Ⅲ-24〉 창업유지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 성공요인 인식 차이

단위: 명(%)

Ξ	구분	전체	자금 조달 능력	판로 확보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경영 및 마케팅 능력	제품의 품질 (차별 성)	인적 네트 워크	입지 (상권) 선정	브랜드 인지도 및 기타	χ²
7	전체	573 (100.0)	189 (33.0)	129 (22.5)	74 (12.9)	79 (13.8)	32 (5.6)	32 (5.6)	26 (4.5)	12 (2.1)	
성별	남성	478 (100.0)	165 (34.5)	112 (23.4)	58 (12.1)	67 (14.0)	23 (4.8)	24 (5.0)	19 (4.0)	10 (2.1)	11.34
02	여성	95 (100.0)	24 (25.3)	17 (17.9)	16 (16.8)	12 (12.6)	9 (9.5)	8 (8.4)	7 (7.4)	2 (2.1)	11.04
	30대 이하	66 (100.0)	19 (28.8)	8 (12.1)	14 (21.2)	8 (12.1)	7 (10.6)	3 (4.5)	4 (6.1)	3 (4.5)	
연령	40대	172 (100.0)	51 (29.7)	42 (24.4)	23 (13.4)	23 (13.4)	8 (4.7)	13 (7.6)	9 (5.2)	3 (1.7)	22.70
28	50대	228 (100.0)	87 (38.2)	51 (22.4)	26 (11.4)	29 (12.7)	12 (5.3)	12 (5.3)	8 (3.5)	3 (1.3)	22.70
	60대 이상	107 (100.0)	32 (29.9)	28 (26.2)	11 (10.3)	19 (17.8)	5 (4.7)	4 (3.7)	5 (4.7)	3 (2.8)	
	고졸 이하	141 (100.0)	51 (36.2)	31 (22.0)	16 (11.3)	21 (14.9)	4 (2.8)	4 (2.8)	12 (8.5)	2 (1.4)	
÷134	전문대	140 (100.0)	56 (40.0)	30 (21.4)	17 (12.1)	14 (10.0)	7 (5.0)	10 (7.1)	3 (2.1)	3 (2.1)	40.00**
학력	대학교	207 (100.0)	71 (34.3)	43 (20.8)	23 (11.1)	29 (14.0)	13 (6.3)	12 (5.8)	10 (4.8)	6 (2.9)	40.38**
	대학원 이상	85 (100.0)	11 (12.9)	25 (29.4)	18 (21.2)	15 (17.6)	8 (9.4)	6 (7.1)	1 (1.2)	1 (1.2)	
장애	1~3급	151 (100.0)	49 (32.5)	35 (23.2)	17 (11.3)	21 (13.9)	8 (5.3)	12 (7.9)	7 (4.6)	2 (1.3)	3.16
등급	4~6급	422 (100.0)	140 (33.2)	94 (22.3)	57 (13.5)	58 (13.7)	24 (5.7)	20 (4.7)	19 (4.5)	10 (2.4)	3.10

주: \*p < .05, \*\*p < .01 \*\*\*p < .001

한편,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라 창업 성공요인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표 Ⅲ-25〉 창업유지자의 창업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

LO	١.	ты.	(%)

-	구분	전체	자금 조달 능력	판로 확보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경영 및 마케팅 능력	제품의 품질 (차별 성)	인적 네트 워크	입지 (상권) 선정	브랜드 인지도 및 기타	χ²
- 7	전체	573 (100.0)	189 (33.0)	129 (22.5)	74 (12.9)	79 (13.8)	32 (5.6)	32 (5.6)	26 (4.5)	12 (2.1)	
	개인 사업체	324 (100.0)	104 (32.1)	69 (21.3)	47 (14.5)	46 (14.2)	14 (4.3)	17 (5.2)	20 (6.2)	7 (2.2)	
업체 형태	법인	243 (100.0)	81 (33.3)	60 (24.7)	27 (11.1)	33 (13.6)	17 (7.0)	15 (6.2)	5 (2.1)	5 (2.1)	18.07
	프라이즈 및/타	6 (100.0)	4 (66.7)	- (-)	- (-)	- (-)	1 (16.7)	- (-)	1 (16.7)	- (-)	
	개인 서비스업	128 (100.0)	35 (27.3)	26 (20.3)	13 (10.2)	21 (16.4)	7 (5.5)	8 (6.3)	11 (8.6)	7 (5.5)	
	제조업	187 (100.0)	64 (34.2)	51 (27.3)	26 (13.9)	21 (11.2)	14 (7.5)	7 (3.7)	2 (1.1)	2 (1.1)	
주	도/소매 업	128 (100.0)	40 (31.3)	27 (21.1)	20 (15.6)	20 (15.6)	6 (4.7)	8 (6.3)	6 (4.7)	1 (0.8)	40.77
업종	건설업	90 (100.0)	39 (43.3)	17 (18.9)	8 (8.9)	10 (11.1)	2 (2.2)	8 (8.9)	4 (4.4)	2 (2.2)	49.77
	숙박/ 음식업	22 (100.0)	5 (22.7)	3 (13.6)	5 (22.7)	5 (22.7)	1 (4.5)	- (-)	3 (13.6)	- (-)	
	기타	18 (100.0)	6 (33.3)	5 (27.8)	2 (11.1)	2 (11.1)	2 (11.1)	1 (5.6)	- (-)	- (-)	
	3천만원 미만	175 (100.0)	47 (26.9)	41 (23.4)	23 (13.1)	28 (16.0)	14 (8.0)	11 (6.3)	5 (2.9)	6 (3.4)	
투입 자금	3~7천만 원 미만	168 (100.0)	54 (32.1)	42 (25.0)	20 (11.9)	19 (11.3)	8 (4.8)	12 (7.1)	11 (6.5)	2 (1.2)	16.29
	7천만원 이상	230 (100.0)	88 (38.3)	46 (20.0)	31 (13.5)	32 (13.9)	10 (4.3)	9 (3.9)	10 (4.3)	4 (1.7)	
창업	있음	252 (100.0)	82 (32.5)	49 (19.4)	38 (15.1)	33 (13.1)	14 (5.6)	13 (5.2)	19 (7.5)	4 (1.6)	10.00
교육 경험	없음	321 (100.0)	107 (33.3)	80 (24.9)	36 (11.2)	46 (14.3)	18 (5.6)	19 (5.9)	7 (2.2)	8 (2.5)	13.33

-	구분	전체	자금 조달 능력	판로 확보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경영 및 마케팅 능력	제품의 품질 (차별 성)	인적 네트 워크	입지 (상권) 선정	브랜드 인지도 및 기타	χ²
- 관련 업종	있음	440 (100.0)	148 (33.6)	94 (21.4)	50 (11.4)	68 (15.5)	22 (5.0)	28 (6.4)	19 (4.3)	11 (2.5)	10.00
종사 경험	없음	133 (100.0)	41 (30.8)	35 (26.3)	24 (18.0)	11 (8.3)	10 (7.5)	4 (3.0)	7 (5.3)	1 (0.8)	13.62
 관련 자격	있음	207 (100.0)	67 (32.4)	41 (19.8)	29 (14.0)	26 (12.6)	12 (5.8)	12 (5.8)	15 (7.2)	5 (2.4)	7.00
증 유무	없음	366 (100.0)	122 (33.3)	88 (24.0)	45 (12.3)	53 (14.5)	20 (5.5)	20 (5.5)	11 (3.0)	7 (1.9)	7.20

주: \*p < .05, \*\*p < .01 \*\*\*p < .001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 및 해석해보면 창업준비단계와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 인식한 애로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연구에서 분석한 창업 준비단계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판매/마케팅 관리 문제, 창업 후 경영단계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판매/마케팅 관리 문제는 자금조달능력과 판로확보란 성공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즉 다수의 장애인 창업가들은 애로사항의 해결을 창업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준비단계 및 창업후 경연단계 애로사항에 따라 창업 성공요인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III-26>과 같다. 창업준비단계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을 성공요인으로 인식한 비율이 46.0%로 절반에 가까웠다. 그러나 판로확보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성공요인으로 판로확보를 인식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창업 후 경영단계 애로사항으로 판매/마케팅 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성공요인으로 판로확보를 인식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고 애로사항으로 재무/자금 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성공요인으로 판로확보를 인식한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고 애로사항으로 재무/자금 관리를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성공요인으로 자금조달능력을 응답한 인식한 비율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표 Ⅲ-26〉 창업준비단계 및 창업 후 경영단계 애로사항과 창업 성공요인 비교 단위: 명(%)

	구분	전체	자금 조달 능력	판로 확보	창업 유망 아이템 선정	경영 및 마케팅 능력	제품의 품질 (차별성)	인적 네트 워크	입지 (상권) 선정	브랜드 인지도 및 기타
	전체	573 (100.0)	189 (33.0)	129 (22.5)	74 (12.9)	79 (13.8)	32 (5.6)	32 (5.6)	26 (4.5)	12 (2.1)
창	자금조달	291 (100.0)	134 (46.0)	56 (19.2)	34 (11.7)	33 (11.3)	9 (3.1)	8 (2.7)	14 (4.8)	3 (1.0)
업 준	판로확보	114 (100.0)	20 (17.5)	44 (38.6)	18 (15.8)	19 (16.7)	3 (2.6)	7 (6.1)	3 (2.6)	- (-)
비 단 계	아이템 발굴 및 시업티당성 분석	42 (100.0)	8 (19.0)	7 (16.7)	8 (19.0)	9 (21.4)	3 (7.1)	2 (4.8)	4 (9.5)	1 (2.4)
애	인력확보 및 관리	53 (100.0)	12 (22.6)	13 (24.5)	5 (9.4)	7 (13.2)	5 (9.4)	7 (13.2)	1 (1.9)	3 (5.7)
 로 사	복잡한 행정절차	40 (100.0)	10 (25.0)	6 (15.0)	4 (10.0)	5 (12.5)	4 (10.0)	5 (12.5)	3 (7.5)	3 (7.5)
항	기술 및 제품력 확보	27 (100.0)	4 (14.8)	2 (7.4)	5 (18.5)	5 (18.5)	7 (25.9)	3 (11.1)	- (-)	1 (3.7)
	기타	6 (100.0)	1 (16.7)	1 (16.7)	- (-)	1 (16.7)	1 (16.7)	- (-)	1 (16.7)	1 (16.7)
	판매/ 마케팅 관리	207 (100.0)	44 (21.3)	71 (34.3)	32 (15.5)	30 (14.5)	9 (4.3)	6 (2.9)	9 (4.3)	6 (2.9)
창 업 후	재무/자금 관리	151 (100.0)	79 (52.3)	25 (16.6)	15 (9.9)	14 (9.3)	6 (4.0)	3 (2.0)	7 (4.6)	2 (1.3)
우 경 영	인력 관리	95 (100.0)	30 (31.6)	18 (18.9)	7 (7.4)	15 (15.8)	7 (7.4)	12 (12.6)	3 (3.2)	3 (3.2)
단 계	회계/세무 관리	65 (100.0)	18 (27.7)	8 (12.3)	13 (20.0)	11 (16.9)	2 (3.1)	9 (13.8)	4 (6.2)	- (-)
애	구매/생산 관리	15 (100.0)	6 (40.0)	3 (20.0)	1 (6.7)	1 (6.7)	3 (20.0)	1 (6.7)	- (-)	- (-)
로 사 항	경영정보 시스템(MIS)	15 (100.0)	4 (26.7)	2 (13.3)	2 (13.3)	3 (20.0)	1 (6.7)	1 (6.7)	2 (13.3)	- (-)
-5	기타	25 (100.0)	8 (32.0)	2 (8.0)	4 (16.0)	5 (20.0)	4 (16.0)	- (-)	1 (4.0)	1 (4.0)

주 1) 창업준비단계 애로사항에 따른 차이 검정 결과: x²= 130.84, p<.001(df=42)

장애인 창업 성공요인 분석을 위해 창업유지자와 창업 후 휴·폐업자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창업유지자와 창업 후 휴 폐업자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아래 표와 같이 변수를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Ⅲ-27〉 조사 도구 및 분석 방식별 투입 변수

	구	분	내용	로짓분석 투입 여부
		성별	남성, 여성	√(더미)
	개인특성	장애등급	1급-6급	√
		학력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석 • 박사	
		관련분야 종사경험	있다, 없다	√(더미)
	창업 시전경험	관련분야 창업경험	있다, 없다	√(더미)
		모의창업경험	있다, 없다	√(더미)
		관려분야 자격증	있다, 없다	√(더미)
	창업준비	투자금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상	√(log)
	영합판미	창업소요기간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더미)
E21	카이하리	업체형태	법인, 개인사업체, 프렌차이즈	√(더미)
<u>독립</u> 변인	창업형태 및 업종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더미)
		참여여부	창업교육, 창업시업화지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전시회참가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지적재산권 출원지원, MBA 교육	√(더미)
		만족도	창업교육, 창업시업화지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전시회참가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지적재산권 출원지원, MBA 교육	
	창업지원	창업지원 도움 시기	창업 전 지원, 창업 후 1년 내 지원, 창업 후 1년 이상 ~ 3년 내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창업 단계 애로사항	아이템 발굴 및 사업티당성 분석, 자금조 달, 판로확보, 인력확보 및 관리, 기술 및 제품력 확보, 복잡한 행정절차, 기타	
		경영단계 애로사항	판매/마케팅 관리, 인력관리, 회계/세무 관리, 재무/자금관리, 구매/생산관리, 경 영정보시스템(MIS), 기타, 어려움이 없음	
종속 변인	창업	유지 여부	1. 창업 유지 2. 창업후 휴·폐업	√

<sup>2)</sup> 창업 후 경영단계 애로사항에 따른 차이 검정 결과: χ<sup>2</sup>= 108.72, p<.001(df=4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기준 대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에서 Cox와 Snell의 R제곱은 9.7%, Nagelkerke R제곱은 21.4%의 범위로 나타났다.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748로 예측력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창업교육 이수 여부, 관련 직업 종사 경험, 창업소요기간, 장애등급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창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분	В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창업교육이수	0.846	.399	21.413	1	.000	2.330
 종사경험	0.873	.300	8.462	1	.004	2.394
창업소요기간	1.132	.370	9.355	1	.002	3.102
장애등급	-2.079	.468	19.715	1	.000	0.125

<sup>\*\*</sup>p<..01, \*p<..05

세부적으로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수하지 않을 경우보다 창업 유지에 성공할 확률이 2.3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직업 중사경험의 경우, 이전에 경험을 한 경우는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창업 유지에 성공할확률이 2.39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소요기간을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창업까지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일 경우보다 3.102배 창업 유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의 경우장애등급 급수가 1등급 낮아질 때마다 창업 유지 확률은 1.87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휴폐업 이유

창업휴폐업자에게 휴폐업 이유를 질문한 결과, 1. 자금 조달 어려움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6.1%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는 2. 사업 아이템 경쟁력 부족 (35.1%), 3. 사업 성공하기까지의 경제활동(생계유지)문제(33.3%), 4.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부족(21.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창업준비단계 및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같이 자금 문제가 다수의 장애인 창업가의 창업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29> 창업휴폐업자의 휴폐업 이유

57 32	100.0
32	
	56.1
20	35.1
19	33.3
12	21.1
9	15.8
8	14.0
5	8.8
2	3.5
1	1.8
4	7.0
	19 12 9 8 5 2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합이 100%를 초과

##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창애인 창업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장애인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요인을 구명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얻은 핵심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창업을 촉진시키고 창업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사업 안착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창업 기업 실태조사 결과, 창업관련 경험(관련업종 종사경험 등) 및 투입자금이 창업유지와 창업 후 휴ㆍ폐업을 가늠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창업 이전에 해당 업종에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준비단계, 창업 후 경영단계 등 단계별로 장애인 창업에서의 애로사항

을 구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은 ①자금조달, ②판로확보, ③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은 ①판매 및 마케팅 관리, ②재무 및 자금 관리, ③인력관리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창업 업종, 창업교육 경험 여부, 창업 준비 여부, 관련업종 종사경험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창업 기업 실태조사 결과, 이상의 요인에 따라 인지하는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고, 요구하는 지원사항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 업종, 관련업종 종 사경험 등 개인이 보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창업 전,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 후 1~3년, 창업 후 3~7년 등 시기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장애인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①자금 지원 또는 보증, ②기술 사업화 지원, ③공간(사업장) 지원 등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창업하기 이전,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 후 1~3년 내 등 시기별로 수혜 받은 지원사항에 대한 실질적 도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재정 및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물적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반면, 장애인 창업 후 어느 정도 안착한 이후에는 자금 지원 또는 보증 등 물적 인프라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한 요소이나, 그 못지 않게 인력채용 지원, 판로 지원등에 대한 사항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 후 3~7년 내 수혜 받은 지원사항에 대한 실질적 도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나, 인력채용 지원 및 판로 지원이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창업 초기 단계보다는 많았다.

다섯째,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준비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예정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원 준비절차가 불편하여 지 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 으로 지원기회 부족, 지원내용 및 규모 불충분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운영합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궁정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5~4.00점 수준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특히 MBA교육은 평균 4.00, 시제품제작 지원 및 지재권 출원 지원은 평균 3.96으로 여타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창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지재 권 출원 지원 등은 창업 유지자에 비해 창업 후 휴·폐업자가 상대적으로 실질적 도움 여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센터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장애인 창업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①자금조달능력, ②판 로확보, ③창업유망 아이템 선정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장애인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 혹은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2.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 얻은 핵심적인 결론을 토대로 향후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장애인 창업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중 창업경험을 보유하였거나 동일한 관심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창업 성공자들을 중심으로 역할모델(role model)을 개발하고 확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할모델의 존재는 성공한 창업가를 안다는 사실이 장애인 스스로 성공한 창업가로 되기 위한 행동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선취업-후창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장애인 창업자의 경우 관련분야 종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창업 유지자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격적으로 창업하기에 앞서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경력을 쌓고,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취업과 연계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업 실무 혹은 창업 현장을 선제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2년 정도를 창업관심 분야와 관련된 창업기업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속적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구체화한 후 창업과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창업 유지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등급 및 유형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이를 창업교육과 연계하여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등급 및 유형별로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선정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등급 및 유형별 창업사례 제공, 창업멘토링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창업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요구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창업자가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실무 및 실제 사례 중심으로 운영하여 창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가 pool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정책 및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품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